

제 5 장 행사 및 활동

제 15 조 (연례행사): 본회는 매년 다음의 행사와 모임을 갖는다.

- 1) 정기총회
- 2) 이사장배 골프대회
- 3) 고연전 체육대회
- 4) 송년회
- 기타 야유회나 등산 모임 등

제 16 조 (경조사): 본회는 회원의 경조사시 다음과 같이 경조 한다.

- 1) 회원 및 회원 배우자의 타계
연회비를 1회 이상 납부한 회원에게 \$300 내외의 부의금 혹은 조화 증정
- 2) 회원의 개업, 불의의 사고, 회원 및 회원 배우자 부모의 타계, 자녀 결혼 등
연회비를 1회 이상 납부한 회원에게 \$150 내외의 화환, 조의 금, 축의 금 또는 선물
- 3) 회장의 재량사항 인정

제 17 조 (모교기부): 본회는 모교의 발전과 관련하여 매년 일정금액 (\$500 수준)을 모교에 기부할 수 있다.

제 18 조 (회원록 정비): 본회는 매 2년마다 한 번 회원록을 정비하여 회원에게 배부한다.

제 19 조 (사업 추진): 본회는 회원들의 연락처소 마련 등 추후 회원 대다수의 이해에 부합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한다.

제 6 장 예산 및 계리

제 20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21 조 (연회비 납부): 본회의 회원은 제 15조 내지 제 17조에서 정한 행사와 활동을 위하여 매년 일정 회비(연회비 또는 교우회비)를 납부한다.

제 22 조 (예산안): 회장은 매년 초 당해 연도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 23 조 (경비집행): 제 15조 내지 제 17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사와 활동 경비는 당해연도의 연회비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소요경비가 수입을 초과할 시에는 후원금 (개인 후원금, 친목회 모임을 통한 후원금)이나 적립금 또는 이사회비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 24 조 (적립금 규모): 본회는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여유금 내지 준비금조로 적립금을 \$5,000 이상 유지토록 한다.

제 25 조 (기타 활동 경비): 회장은 예산안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활동이라도 필요할 경우 이를 행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1건당 경비집행액이 \$500을 초과할 시는 사전에 이사회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26 조 (사업기금 조성): 본회는 제 19 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 27 조 (감사): 감사는 본회의 경비집행 및 재정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 28 조 (결산 보고): 회장단 (회장, 부회장 및 총무)은 당해연도의 예산집행 내용을 결산하고 감사를 받은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해 1월중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부칙

제 29 조:

- 1)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포상할 수 있다.
- 2) 본 회의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회원은 총회에 출석인원의 2/3 이상 의결 로서 제명할 수 있다.

제 30 조 (회칙 개정): 본 회칙은 임원단 또는 회원 20인 이상이 개정을 발의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 31 조 (시행):

- 1) 본 회칙은 2000년 2월 부터 시행한다.
- 2) 본 회칙은 2003년 3월 9일 부터 시행한다.

2023년 4월 개정 내역

1. 제 2 장 (임원) 제 4 조: '필요시 회장이 임원을 추가할 수 있다' 추가
2. 제 3 장 이사회 분리: 4조, 8조, 13조 이사회 부분 이동.
3. 제 3 장, 제 9 조: 이사 30인 이내에서 40인 이내로 변경하고 이사장이 임명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임명
4. 제 5 장 (행사 및 활동) 제 15조 (연례행사) k항: 총장배 골프대회를 이사장배 골프대회로 명칭 변경
5. 제 5 장, 제 16 조 (경조사) k항: \$100에서 \$150로 한도 증액
6. 제 5 장, 제 17 조 (모교기부): 매년 기부 금액 한도를 \$300에서 \$500로 증액
7. 제 6 장 (예산 및 계리), 제 25 조 (기타 활동 경비): 예산안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활동의 경우 이사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비 집행 액 한도를 \$300에서 \$500로 증액
8. 제 7 장 (부칙), 제 30 조 (회칙개정): 회칙 개정 발의의 주체를 이사회의 의결이나 회원 20인 이상에서 임원단과 회원 20인 이상으로 변경

나. 고려대학교 애틀랜타 교우회 회계, 재정 운용 경과

1) 1980년대 교우회는 재정의 여유 없이 운용

1980년 12월 제정된 교우회 회칙에는 교우회의 소요경비 충당을 위해 연회비 (회원당 \$50) 와 찬조금 조항을 두고 있으나, 지금과 같이 연중 정례행사나 모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예산이나 결산 등에 관한 조항이 없었다. 창립 초기 교우회의 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모임은 봄, 가을 철의 야유회 (또는 골프 등 체육모임)모임과 연말의 송년모임 등 연중 서너 차례를 넘지 않았다. 야유회나 체육모임은 스톤마운틴 파크 등에서 가졌으며 연말 송년모임은 홀이 있는 식당 등을 이용하였는데, 이때 소요되는 회원들이 낸 연회비로 지급 처리되었으며 연회비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일부 회원들 (권오승, 문상호, 한기대 교우 등)의 찬조금으로도 충당되었다. 이와 같이 넉넉치 않은 재정상태는 1989년까지 지속되었다.

2) 1989년 친목계로부터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받다.

우리 교우회는 1989년 김철홍 회장 (경영 59)시 교우회 재정의 원활화를 위해 교우 친목계를 조직하였다. 이 친목계는 15~20명 내외의 계원들이 매월 \$100씩 계금을 내고, 당해 월 계금을 타는 계원이 당일의 경비 (주로 식비)를 부담하고 교우회 앞으로 \$200을 후원하는 형태였다.

이로써 우리는 이후부터 2009년까지 약 20년간 비교적 재정이 안정된 상태에서 교우회를 꾸려 갈 수 있게 되었다.

3) 2001년 이사회 제도를 만들어 재정운용의 원활을 도모하다.

교우회는 2001년 회칙 개정시 경조사의 대상을 회원과 회원의 직계가족으로 구분하였고 경조 방법 및 경조금 범위도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새로이 “이사회” 제도를 만들어 우리 교우회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관행적으로 이사들로부터 이사회비를 받아 재정운용의 원활화를 도모하여 오고 있다.

4) 2009년 상반기 재정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회장단의 노력으로 극복하다.

2008년 상반기 왕모 회장 사건과 관련 교우회 재정유보금 (기금, 약 5천불 추산)의 손실이 있었으나 이후 회장단 및 회장 (이순재, 안성호)들의 노력과 자비 충당 등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었다.

5) 2023년 교우회 비영리법인 위치 격상

우리 교우회는 오래전부터 세무당국(IRS)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여 왔으나 교우회가 받는 기부금이나 후원금 등에 대해 세금공제증서를 발급할 수가 없었다. 2023년 우리 교우회는 세무당국(IRS)으로부터 세금공제증서 발급자격을 갖춘 비영리단체(501(c)(3))로 승인 받았으며 이에 따라 기부자가 지급인을 고려대학교 교우회 기금 (KUAF, KU Alumni Foundation of Southern USA Inc.) 으로 하면 세금공제증서를 발급 받게 되었다.

6) 최근 재정안정화 기초

재정의 어려움을 겪은 2010년을 지나 2011년도부터 교우회비 및 이사회비의 수입이 안정화되고 여러 회장님들의 후원금 등에 힘입어 재정은 점차 안정화되고있다. 2023년도의 경우 총수입액은 약 \$40,000 수준이고 지출액은 총 \$33,000이었으며, 2023년말 재정유보금 (기금 또는 적립금)은 약 \$20,000수준을 기록하고있다.

7) 여러 회원님의 도움으로 오늘의 교우회가 존재

우리 교우회 재정은 기본적으로 회원님들이 내는 연회비와 이사회비를 주축으로 운영되어왔지만 교우회 재정은 이들 연회비와 이사회비만으로 충당키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간 이런 부족분은 일부 회원님들께서 음으로 양으로 내는 찬조금이나 후원금 등으로 메꾸어 온 것도 부인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들 회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올린다.

**교색 – Crimson**

PANTONE 202C

C 9% + M 100% + Y 64% + K 48% 값을 기준으로 한다

진홍색(Crimson)은 활기와 정열을 상징하는 빛깔로 고려대학교의 학풍과 기질을 나타낸다.

이하 그간 우리 애틀랜타 교우회나 모교 또는 본부 교우회 앞으로 큰 금액을 찬조 또는 후원해 주신 교우 명단을 소개한다.

거액 후원 교우 명단

권오승 (정외55) 한기대 (행정58) 문상호 (경영59,작고)

정희창 (의학60) 이기철 (의학60) 김순홍 (의학62)

홍기문, 김혜경 교우 부부 (의학66, 2023년도에 8만불 쾌척)

박남철 (기계67) 오대기 (화학67) 서봉규 (건축71)

안병철 (기계71) 장마리아 (간호72) 서상희 (전기74)

윤춘호 (영문77) 안성호 (기계78) 이재훈 (기계78)

곽용식 (경영81) 카렌장 (수교82) 박규만 (건축82)

III. 우리들의 삶과 예술

1. 동아리 모임

- 의과대학동아리
- 산악회동아리
- 사격동아리
- 고대 여학생 교우회(여우회)
- 간호학과동아리
- 골프동아리
- 사진동아리
- Emory 대학 고대 교우회

2. 우리들의 시, 글, 그림

- 주정숙(시: 들포도)
- 이광언(감상문: 내가 감상하는 “신세계 교향곡”)
- 이순재(고대인의 끈끈한 정)
- 안성호(감상문: 삶의 왈츠, 고대의 혼-Gustav Mahler 교향곡 1번 3악장)
- 김수영(고 이종연 선배님을 기억하며)
- 서원철(수필: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 박세당(엄마와 나의 고려대학교 놀이터 이야기)
- 이혜옥(그림: 술 가지 그늘 속 백로 한 쌍)
- 신재연(그림: Poach in Silence)

3. 부부 고대인

- 송경석,이혜옥
- 김창훈,조은영
- 김경화,유철희
- 박한정,김민희

4. 특별회원의 글

- 명예교우 Peter Heidbreder (Korea University Alumni Story)
- 고 김강진 본교 명예교수(내가 본 고대)

애틀랜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우회

리더:김순홍(의학 62)

뿌리 깊은 나무, 애틀랜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우회

애틀랜타의 붉은 흙 위에 뿌리내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우회. 이들은 단순한 교우 모임을 넘어, 의료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모교의 명예를 드높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의료 봉사를 중심으로 한 활동은 교우들의 숭고한 소명 의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인 사회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개척자 정신, 애틀랜타 한인 의료 사회의 초석

1969년, 낯선 땅 애틀랜타에 첫 발을 내딛은 고 김선희 교우 (의학 58)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의사 자격을 취득한 수백 명의 한국 의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월남전쟁과 의료 개혁 등으로 의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었고, 김 교우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애틀랜타 다운타운 병원에서 연수를 받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김선희 교우는 단순히 의료 활동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인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교민들의 정착과 교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사랑방 음악회' 등 친목과 문화 교류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여 한인 이민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애틀랜타 최초의 한인 교회 설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교민들의 신앙 생활을 지원했습니다.

1980년, 김선희 교우는 '한인 봉사센터'를 설립하여 교민들이 병원 이용, 이민 절차, 복지 수혜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봉사센터는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와 함께 정부 및 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Center for Pan Asian Community Services'와 'Cosmo Health Center'로 발전했고, 현재까지도 모든 이민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교우는 2020년 작고했지만, 그의 부인 신채원씨는 여전히 이 대규모 비영리 단체를 이끌며 남편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선희 교우는 애틀랜타 한인 사회의 발전과 화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려대학교 가족의 효시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봉사의 등불, 40년 의료 봉사

1978년, 의학의 꿈을 안고 미국 애틀랜타 땅을 밟은 정희창 교우 (의학 60), 정희자 교우 (의학 60) 부부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묵묵히 의료 봉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역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온 이들 부부의 이야기는 참된 의료인의 표상을 보여줍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정희창 교우 부부는 애틀랜타 한인교회의 살롬대학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

니다. 노년층이 주를 이루는 살롬대학 학생들은 대부분 의료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라 부부는 이들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상담을 제공하며, 질병 예방 및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 질환 관리 교육과 응급 처치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교회의 살롬대학에서 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봉사원들

2010년부터 수년간, 정희창 교수 부부는 매주 토요일 애틀랜타 한인회에서 무료 진료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의료보험이 없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부부는 통증, 알러지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건강 증진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정희창 교수 부부는 한인 2세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겨 애틀랜타 한글학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교사들을 격려하며 한글학교가 뿌리내리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인교회 내, 청소년 오케스트라 및 시니어 합창단 결성을 지원하며 한인 사회의 문화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은 매년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며 한인 사회 뿐 아니라 타민족에게도 한국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인술로 빛낸 숭고한 여정

1967년, Long Island College Hospital에서 인턴 과정을 마친 장학천 교수(의학 58)는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과 Medical College of Wisconsin Milwaukee에서 의사로서의 탄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2009년,

그의 발걸음은 애틀랜타에 닿았습니다. Emory Hospital 비뇨기과에서 2022년까지 봉직하며 뛰어난 실력과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특히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 교포들에게 그는 단순한 의사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의 친절한 미소와 한국어로 전하는 따뜻한 격려는 환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헌신은 Emory 병원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Grady Memorial Hospital 병원에서도 흑인 사회를 향한 그의 인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료 혜택이 부족한 이들에게 빛과 같은 존재였던 장학천 교수, 그의 숭고한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귀감이 되었습니다.

공식 출범, 고려대학교 애틀랜타 의과대학 교우회의 탄생

2012년, 애틀랜타 지역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공식적인 교우회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뜻깊은 출범의 배경에는 여호근 교수 (의학 58)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는 흩어져 있던 교우들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끈끈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마침내 'KUMCAA(Korea University Medical College Alumni Association)'라는 명칭으로 활동을 시작한 교우회는 초대 회장으로 김순홍 교수 (의학 62)를 선출했습니다. 김순홍 교수는 탁월한 리더십과 봉사 정신으로 교우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KUMCAA는 단순한 친목 단체를 넘어, 교우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의료 봉사 활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아이티를 향한 첫 발걸음

2014년 5월, 김순홍 교수 (의학 62)와 주정숙 교수 (의학 65) 부부는 오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아이티로 향했습니다. 가방 가득 의약품을 챙겨 떠난 두 사람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지친 기색 없이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김순홍 교수는 능숙한 솜씨로 환자들을 진료했고, 주정숙 교수는 따뜻한 말과 미소로 환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두 사람의 헌신적인 모습은 아이티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들은 두 사람을 '하얀 천사'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아이티에서의 봉사 활동은 김순홍과 주정숙 교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보람은 두 사람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아이티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와 감사는 두 사람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이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순홍 교수

아프리카로 뻗어 나간 사랑의 손길

아이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김순홍, 주정숙 교수는 2017년, 아프리카 케냐와 우간다로 봉사 활동을 넓혔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두 사람은 희망을 잃지 않고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아프리카의 뜨거운 땅에서 펼쳐진 두 사람의 헌신적인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모교를 향한 감사와 나눔

2018년 김순홍 교수는 졸업 50주년을 맞아 동기들과 함께 모은 7만 달러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기부했습니다. 또한 홍기문 교수 (의학 66), 김혜경 교수 (의학 66) 부부는 2022년 8만불을 모교에 기부했습니다.

이들의 기부는 모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후배들을 위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부를 통해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성장하여 훌륭한 의료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미래를 향한 발걸음

고려대학교 애틀랜타 의과대학 교우회는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의료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봉사와 헌신은 교우회의 핵심 가치이며, 이를 통해 더욱 발전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티에서의 주정숙 교수

간호학과 동아리

리더 : 장마리아 (간호 72)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교우의 애틀랜타 교우회와의 인연

장마리아: New York주에 정착 후 모교 간호학과 전신이던 우석대 간호과 선배의 후배 사랑 및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원활한 이민 생활을 정착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애교심이 고취되어 교우 사랑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세월이 흘러 은퇴를 생각할 때 즈음하여 이미 애틀랜타에 정착하여 살고 있던 남동생, 그리고 학생 시절 UNESCO 학생회 동아리 시절부터 잘 알고 지내던 애틀랜타의 간호학과 후배, 이해옥 교우의 적극적인 권유로 2013년 4월, 애틀랜타로 이주 하였고, 2013~2020년까지 Emory Johns Creek Hospital Preadmission Test Department에서 근무하고 은퇴했습니다. 교우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2017~2018년 교우회장을 역임하는 등, 최선을 다해, 그 동안 받기만 하던 교우 사랑을 애틀랜타 교우회에 고스란히 돌려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실천 중에 있습니다.

이혜옥: 1981년 5월, 부부 교우가 애틀랜타로 이주한 이후, 당연히 교우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며 오늘 날 까지 모교 사랑을 실천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교우회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거의 모든 교우회 활동에 중추적인 위치를 남편인 송경석 교우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히 애틀랜타 모교 교우회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은미: 2023년도 3월, 연구 교수로 애틀랜타에 도착 후, 그 동안 알고 지내던 New York의 고대 후배 (정해빛나)에 연락하였더니 미국에 와서 당장 의지할 수 있는 곳은 고대 교우회이다 라는 설명과 함께, 애틀랜타 유학생 단독방 주소를 받아 교신을 시작하였고 이후 이종원(사회 95) 변호사를 통해 애틀랜타 전체 교우 단독방에 초대 되고 2023년 6월 춘계 야유회에 참석하여 따뜻한 교우회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교 간호학과 애틀랜타 교우회 활동

애틀랜타 한인 간호사 모임인 KNAA(Korean Nurses Association of Atlanta)의 2022년 2월 발족에 모교 간호학과 교우들이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2023년 2월부터 2년 임기의 제2대 회장을 장마리아 교우가 맡아 봉사하고 있으며 동 조직은 한인 간호사 공동체의 친목, 상호 협조와 권익 옹호 그리고 전문적 지식을 통한 Local은 물론Global 지역 봉사를 Mission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KNAA는 Africa Future Foundation을 통해 처음으로 Africa Congo 간호 대학에 장학 사업을 시작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 한인 간호사회 (OKNA: Overseas Korean Nurse Association)의 일원으로서 전세계 9개국에 흩어져 있는 재외 간호사 모임에 애틀랜타 모교 간호학과 교우들의 정기적인 참여와 기여는 의미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미국 내는 물론 전세계 간호인으로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Pandemic – Covid-19 상황의 간호학과 교우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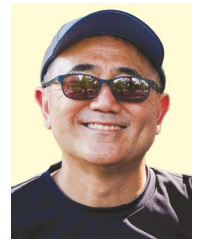
이혜옥: 의료 전문인으로서 COVID-19 대응을 위한 위생, 소독 방법 등 전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은미: 처음 경험하는 COVID-19 사태에 제한적인 의료 인력으로 대응함에 어려움을 겪었고 무엇보다 커리큘럼이 없어 의료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웠고, COVID-19 대응 Guide Line/Manual을 제작함에 처음인지라 우왕좌왕하였으나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 하는 보람도 갖게 되었습니다. 동 기간 중, 간호사 입장에서 무척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Pandemic 관리를 위한 대관공서 업무도 함께 했기에 의료인으로서의 쉽지 않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산악회 동아리

(고려대학교 애틀랜타 교우 산악회)



리더: 박규만 (건축 82)

창립 15년의 역사를 가진 산악회는 역동적이며 가입회원도 많고 가족들의 참여율도 높은 친근하고도 바람직한 모임입니다. 2009년 9월 창설된 산악회는 코로나질병이 나타나기 전인 2020년 3월까지의 기간 중 매달 한번도 빠짐없이 산행활동을 함으로써 회원들의 심신건강에 도움을 주며 회원 간의 친목도모에도 크게 이바지하여 왔으나 코로나 질병이 유행했던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 3개월 동안은 산행활동을 중단했고, 2021년 7월부터 활동을 재개하여 오고 있습니다.

1. 고대 애틀랜타 산악회 2009년 9월 창립

2008년 하반기 이후 종전의 매월모임-친목계모임이 없어지면서 박병호, 박양삼, 이광언, 박남철, 김종학 교우 등을 중심으로 한 달에 한번 산행을 원칙으로 하는 산악회 결성 논의가 오고 갔습니다. 이들 교우님들은 2009년 9월 “고려대학교 애틀랜타 교우산악회 (Korea University Alpine Club of 애틀랜타, 약칭 “KUAC)”를 창립하였으며 초대 회장으로 준프로 산악인이었던 이순재 교우님 (화학 61)을 선임하였습니다. 애틀랜타산악회는 첫 산행을 2009년 9월 20일(일요일) 둘루스에서 약 55마일 북쪽, Helen 가까이 위치한 Raven’s Cliffs Trail 코스에서 가졌습니다. 폭우가 심하게 쏟아지던 이 날, 산행참가자는



폭우 속에서 치른 Raven’s Cliff 트레일에서의 산악회 첫모임

문상호, 박병호 교수님, 박양삼, 한성우, 김종학 부부와 이순재, 이광언 등 도합 12명이었습니다. 이 날 산행은 심한 폭우로 트레일 코스 곳곳이 무너지고, 개울물(크리크)이 넘쳐 당초의 산행목적지인 레이븐 폭포(Raven's Cliff)까지 완주치 못했으며 점심은 산행교우들이 동 트레일 코스의 입구인 Raven' Cliffs Trailhead 파킹장에서 비를 맞으며 각자 준비해온 식사, 비에 젖은 식사를 같이 나누는 즐거운 경험을 나눴습니다. 이후 산악회는 2020년 3월 코로나질병 발생 전까지 10여년간 더우나, 추우나, 비가오나, 눈이 오나, 한번도 빠짐없이 산행을 실시하여 왔으며 그 간 딱 1명만이 산행을 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2. 산악회 리더

초기 우리 산악회를 조직하고 산행을 이끌어 준 리더는 이순재 초대 회장님이었고, 2016년 7월까지 6년 10개월여간 우리에게 적합한 산행코스를 개발하고 대부분의 코스를 사전 예행을 통하여 산행일정을 정하는 등 산악회회원의 안전과 쾌적산행을 위해 헌신하셨으며, 이어 박양삼 선배님 (농학 61)께서 2대 회장을 맡아 2016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7년 6개월간 회원들의 안전산행과 즐거운 산행을 위해 애를 쓰시었으며, 2024년 7월부터는 박규만 교수 (건축 82)가 우리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창립초기 산행참가자는 우리 교수님과 그 가족분으로 한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산행리더 (통상 회장)가 동행치 못할 때도 있었고 동행하더라도 초행길인 경우도 있었으며, 이런 경우 산행을 안전하게 이끌어 줄 당해 산행 베테랑이 요구되기도 했습니다. 이 케이스로 우리가 초빙한 외부인으로는 준 프로산악인 한상기씨(초대 애틀랜타 산악회 회장)가 있으며 우리 산악모임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 합류한 애틀랜타 올드 타이머인 김신규씨 (ExtremeSportsman), 임재수씨, 임황빈씨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류한 외부인을 우리는 우리 산악회의 준회원으로 대접, 산행의 즐거움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악회를 거쳐간 여러 인물을 얘기하다 보니, 김성윤 교수 (대학원 80)와 박노홍 교수 (대학원 01)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행 매니아였던 김성윤 교수는 이순재 선배님을 도와 우리 산악회의 간판 트레일 코스인 Dockery Lake 트레일 코스를 개척하는 등 5년여 기간 동안 산악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였습니다. '특전사' 장교 출신이며 장거리마라톤이 취미인 박노홍 교수는 통상 산행 시 운동을 위해 본인 등산가방도 최대한 무겁게 챙겨 올 뿐만 아니라 여기에 타인의 백도 책임지는 일이 다반사였던 기억이 납니다. 다 그리운 옛 산악 동지들입니다.

3. 산행은 스모키마운틴 자락에 있는 5~6마일 워킹의 당일코스를 선호

미국 동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애팔래치안 산맥의 남단에 위치한 스모키마운틴의 끝자락,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우리 산악회원들은 스모키마운틴의 구석구석에 자리잡은 유명, 무명의 아기자기한 산길, 통상 5,6마일거리의 다음과 같은 트레일 코스를 선호해오고 있습니다.

<산악시>

초대 산악회장 이순재 선배님의 시: “산행길”

뇌성 올리는 이른 아침
 검은 배낭 홀로 메고
 인적 끊긴 산길 혼자 오르네.
 홀로 가는 인생길 이와 같은 걸
 외로운 나그네길 누가 반기리.
 물 젖은 진흙길 따라 정상에 서니
 검은 구름 걷혀지고 하얀 햇살
 기다린 듯 나그네를 반겨주네.
 아~아 이것이 세상살이인걸
 홀로이 고개 들어 미소 짓네.



4. 우리 산악회산행은 기초적인 장비만 갖춰도 가능

우리 산악회는 지금까지 애틀랜타 북쪽 스모키마운틴 자락에 있는 산행거리 5마일 내외의 경치는 좋지
 만 산행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 코스를 선호하여 오고 있음에 비추어, 산행장비는 기초적인 것 만을 갖춰
 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산행 기초장비는 의류 (겨울철엔 방한복 추천, 언제나 예비의류 준비필요). 신발
 (뒤꿈치가 덮이는 트레킹 화), 울 양말, 중형 배낭, 스틱 (트레킹 폴), 그리고 버너와 칼, 스푼 등 취사도구 정
 도입니다. 이들 기초장비도 품질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만, 품질을 중시할 경우에는 등산용품 전문점
 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5. 집결 및 카풀 이용

우리 산악회는 산행 시 보통 적을 때는 10명, 많을 때는 15명정도가 참석합니다. 안전 등 여러가지를 고려
 할 때 같이 모여서 같이 출발하는 게 여러가지로 편합니다. 서로 시간 맞추기도 좋고 심심하지 않아서 좋고
 안전면에서도 유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시간에 한 군데서 모여서 같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간 산악
 회 집결장소로는 다음의 장소가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 400번 하이웨이 선상의 13번 출구 에 있는 잉글스 마켓 앞 파킹장
- I-85 하이웨이선상의 104번 출구에 있는 모차르트빵 집 오른쪽에 있는 파킹장
- I-85. 하이웨이선상의 111번 출구 쪽에 위치한 H-mart 파킹장

모이는 시간은 대체로 8시 30분이었으며 경우에 따라 8시에 모일 때도 있고 9시에 모일 때도 있습니다. 한편 일단 집결 후 산행지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우선 각자의 차로 각자가 가는 방법이 있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량대수가 많으니까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보아 가스비가 많이 들고, 아울러 막상 산행지에 도착해서 주차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 등의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Carpool을 하게 되었고 이로서 가스비도 절약되고 혼선도 줄어들고 산행지에서의 파킹문제도 많이 가셔지게 되었습니다. 카풀 차량은 산악지 운전임을 감안, SUV가 선호되었으며 보통 카풀 이용자는 1인당 \$15이나 \$20을 내고 카풀차 운전자에게 가스비 조로 \$30(장거리 운행시는 \$40)을 지급하는 형태였고 이렇게 하여 남는 돈은 하산 후 애틀랜타로 귀가 시 맥도날드 등에 들려 커피 등 드링크류를 마시는 뒤풀이비용으로 쓰였고 그래도 남는 것은 산악회 회비에 산입되었습니다. 위 산행지 집결 및 카풀 이용은 산행지까지의 거리가 50마일을 넘는 중장거리 산행 시 이용되었고, Allatoona Lake나 Pine Mt. 등 20여 마일 이내 거리에 있는 트레일 코스 산행일 경우에는 각자 운전하여 모였습니다.

6. 산행 및 점심식사

아침 8시 30분이나 9시경 집결하여 카풀하고 산행지로 출발하면 도중에 가스스테이션 등에서 브레이크타임을 한번 갖게 되며 통상 산행지 입구에는 10시반 내지는 11시경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날의 산행리더(대부분의 경우 회장)로부터 당일 산행 일정 등을 듣고 국민체조 등으로 가볍게 몸을 풀 다음 산행을 실시합니다.

보통 2시간 내지 2시간 반정도 산을 오르면 오후 1시나 1시반경에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고 여기서 적당한 공터를 찾아 모두 둘러앉아 각자가 준비해온 식사를 같이 나눕니다.

산행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땀 흘리며 산을 오르고, 이후 같이 둘러앉아 꿀식사를 나누는 시간은 산행 중 즐겁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겨울철에는 간혹 식사장소 주변에 널려 있는 나뭇가지 등을 모아 모닥불을 피워놓고 몸을 녹이기도 했고 시간여유가 있을 때는 모닥불에 고구마 등을 구워 먹기도 하며 고국에서의 어린시절을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

7. 하산과 뒤풀이

보통 3시 이후에는 하산합니다. 하산은 등산시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보통 4시30분경 출발지입구에 도착, 집결합니다. 여기서 당일 회계를 맡은 회원이 당일의 카풀 비용을 정산하고 애틀랜타로 귀가합니다. 대부분 도중에 맥도날드에 들려 약 20분 정도 시간의 티타임을 갖고 집결지로 귀향합니다. 6시경 도착한 집결지에서는 경우에 따라 다같이 저녁식사를 같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대로 헤어져 각자 나름대로 당일산행을 반추하며 피로를 풉니다.

8. 산신제 행사

우리 산악회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산신제를 지냈습니다. 산악회 회원들의 안전산행을 염원하신 초대 이순재 회장님의 주도로 실시된 산신제는

- 홍동백서의 과일류와 채포탕의 제수 및 약주 등을 차려놓고
- 제주인 이순재 회장께서 지방에 쓰여 있는 대로 스모키산 자락을 관장하시는 신령님께 우리 교우 산악회원들의 안전과 평안을 부탁드립니다
- 약주를 따라 올리고
- 제주와 산악회회원들이 산신령님께 두 번 절을 올리는 순서로 거행되었습니다.

이 산신제를 보는 시각은 개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회원의 경우 취지에 찬동하고 동참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고, 일부 종교적 이유 등으로 찬동치 않는 회원님들은 약 15분간 진행되는 산신제행사에 참석치 않으면 됩니다.



2012년 1월 조지아 제일봉 Brasstown Bald Mt.에서 가진 산신제 전경

이순재 회장(왼쪽 끝)이 스모키산 자락을 관장하는 산신령께 우리 산악회원들의 안녕을 부탁드립니다 제문을 고하고 있다.

9. 매년 두차례 바비큐 파티

산악회는 2011년 가을부터 야외 바비큐 향연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단풍이 막 시작하는 화려한 일요일에 우리 산악회는 우리 산악회의 마더 트레일 코스(Mother Trail Course)로 생각하는 Dockery Lake Recreation Area 물가에서 바비큐 파티를 가졌습니다. 총원 30여명이 참석한 이 잔치에서 메인인 바비큐 고기는 박병호 선배님(영문 59) 내외분께서 4,5일에 걸쳐 준비해 주셨고 밥, 국, 야채류와 각종 밑반찬, 음료수, 과일 등은 여러 회원들이 겹치지 않게 적절히 마련했습니다. 박병호 선배님은 예나 지금이나 등산보다는 고기를 어떡하면 더 맛있게 구울 수 있을까 신경 쓰시는 덕에, 나머지 회원들은 약 2시간 반 정도 소요의 호젓하고 아늑한, 때로는 계곡물소리 영롱한 Dockery Lake 트레일 산행을 마치고 오후 1시반, 2시경 모여 꿀 바비큐와 음식을 즐기고 즐겼습니다. 이날 선보인 박병호 선배님 내외분이 열과 성을 다해 차려 주신 바비큐 고기 맛에 대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찬사가 쏟아졌으며, 이 후부터 우리 산악회는 바비큐 파티를 봄, 가을 두차례 갖게 됐고 아직까지 바비큐 고기는 박병호 선배님께서 전담해주시고 계십니다. 이후 바비큐 장소로는 Dockery Recreation Area Park와 Pine Mt. 및 Cloudland Canyon State Park 등을 많이 이용 하고 있습니다.

10. 연말 송년모임

산악회는 코로나가 있기 전인 2019년까지 매년 12월 송년모임을 가졌습니다. 한 해는 음식점이나 노래방 등에서 가졌으며 다음해는 회원이나 회장자택에서 가졌습니다.

회원들을 자택으로 초청해 주신 회원님은 박병호 교우님 (2회), 박양삼 교우님(1회), 서봉규 교우님(1회)들이었고, 서봉규 교우의 부인께서는 음식 서비스와 더불어 노래 서비스 등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11. Rock Climbing ,Rafting Tour 등

가. Yonah Mt.에서 Rock Climbing

2012년 가을 준회원인 한상기 산악인의 지도 아래 우리 산악회 회원들은 Cleveland에 있는 yonah Mt.의 200여 Feet 높이의 깎아 지른 바위를 Rope를 이용해 오르고 내리는 Rock Climbing을 실습하였습니다. 이날 이순재, 정상화, 이광언 및 박양삼 부부, 서봉규 부부 등이 실습에 참여, Rock Climbing의 스틸을 즐겼습니다.

나. Oconee강에서 Rafting Tour

우리 산악회는 2012년 7월 말과 2013년 8월 초에 Tennessee주 Oconee강에서 아찔아찔한, 스틸만점의 Rafting Tour를 즐겼습니다. 통상 급류 타기는 이만저만한 부상사례들이 생기는데 우리 회원님들 20여명이 참석한 두차례의 Rafting Tour 시 부상 사고 등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회원님들의 팀워크가 좋았으며 여기에 더하여 고대산악회 산신령님이 위에서 보살펴 주신 덕분이 아닌가도 여겨집니다. 두 번 다

Rafting Tour 후에는 BBQ향연을 즐기며 피로를 풀었습니다.

다. Clingman's Dome 에서의 해돋이 보기

2013년 9월 우리 산악회 회원 12명 (문상호, 이광언, 서봉규, 박남철 부부 및 이순재, 정상화, 김신규, 한상기)은 Tennessee주와 North Carolina주 접경에 있는 Great Smoky 산자락에 있는 해발 6,644 feet 높이(2,192 마일의 애팔래치아 트레일에서 가장 높은 곳)의 Clingman's Dome 인근에서 새벽 해보기와 이를 카메라에 담는 일출 촬영행사를 가졌습니다. 애팔래치아 트레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구름바다 사이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는 즐거움은 환상적이었고 일품이었습니다. 이 해보기를 위해 애틀랜타에서 새벽 1시에 대형 렌터카를 타고 169마일(270km)거리를 드라이브 해 왔지만, 이런 번거로움은 Clingman's Dome 주변의 경치, 그림 같은 구름바다와 환상적인 해보기를 하고 나면 씻은듯이 사라졌습니다. 산악회는 해보기 및 사진촬영이 끝난 후, 약 3마일 거리의 Clingman's Dome 주변의 트레일 코스를 산행했습니다.

12. 일부 회원님들의 Himalaya 트레킹

준 프로 산악인이었던 초대 이순재 회장님은 2012년 여름 미국 서부 Sierra Nevada 산맥에 있는 219.3마일 (340km)거리의 John Muir Trail 을 23일동안 홀로 Back packing하며 완주하였고, 2014년 봄에는 정상화 교우님 (농화학 61)과 같이 네팔 Himalaya에 있는 해발 2,350미터에서 5,200미터 높이의 안나 푸르나 4개 연봉 트레킹 코스를 5일간에 걸쳐 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학수 교우님 (사회 74)도 2024년 1월 이순재, 정상화 교우님이 완주하였던 Himalaya의 안나 푸르나 트레킹 코스를 정복하는 쾌거를 보였습니다. 이들 산악회 회원님들의 쾌거에 찬사를 보냅니다.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연봉 트레킹 입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순재 교우와 정상화 교우

13. 코비드 질병으로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산악회 활동 중단

14. 2021년 7월 이후 산악회활동 재개

가. 재개후에는 시내나 시내 가까이에 있는 단거리 코스를 선호

코비드가 완전히 가시진 않았지만 그 기세가 조금은 꺾이고 있어 우리 산악회는 2021년 7월부터 산행을 재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전처럼 멀리 가는 것은 삼가고 시내나 근교지에 있는 유명 트레일 코스, 예컨대 Stone Mountain Park내의 Cherokee Loop Trail 코스(5.0마일)나 Little Mulberry Park코스, Amicalola Falls State Park 코스(5.0마일)와 Pine Mt.코스(5.0마일), Sawnee Mt.코스(5.0마일) 그리고 Cochran Shoals Trail 코스(5.0마일) 등의 단거리코스를 많이 이용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21년 하반기이후 시내나 근교에 있는 단거리코스를 선호하여 오고 있는 것은 일부 코비드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최근 산악회에 나오고 있는 회원들, 자녀들과 같이 나오는 젊은 회원들의 선호를 반영해서 입니다.

나. 2023년 “함께 걸어요” 선전 및 산악회 Banner 마련

산악회는 2023년 2월 박규만 부회장의 주도하에 신규회원 모집운동의 일환으로 “함께 걸어요” 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를 교우회 카톡방 등에 공지하여 오고 있으며, 동 2023년 5월에는 고려대학교 애틀랜타 교우산악회를 상징하는 진 빨간색 바탕의 깃발을 마련하여 여러 산행 시 적절히 사용하여 오고 있습니다.

15. 맺음 말

가. 그간의 역동적인 산악회활동은 회원들의 심신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우리 산악회는 2009년 9월 창립 이래 최근까지 약 15년간 초대 이순재 회장님 (2009,9~2016,6 재임)과 2대 박양삼 회장님 (2016,7~2024,5)의 헌신적인 지도아래 조지아주에 소재한 유무명의 보석 같은 트레킹 코스를 산행하고, 인근의 테네시나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여러 산악명소 등도 섭렵하는 등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산악회의 활동은 산악회원님들의 심신건강 및 친목을 다지는 데 크게 이바지하여 오고 있고, 산악회의 존재는 그 자체로 애틀랜타교우회의 버팀목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나. 산악회의 발전을 위해 산행활동의 내실화, 다양화를 위한 제반 노력이 필요

우리 산악회는 창립 후 오랫동안 기본에 충실하였으며 역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우리의 산행 활동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기 때문인지 예전에 비해 활력이나 긴장감이 조금은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다같이 노력하여 2010년대 우리가 보여줬던 활력을 빨리 되찾았으면 좋겠고 이와 관련하여 산악회의 조직은 확대정비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우리 회원들은 80대의 고령회원부터 10대의 자녀회원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고루 퍼져 있으며, 7,80대의 고령회원과 10대의 자녀를 동반한 회원들은 산행 시 1, 2마일의 아주 짧은 코스를 원하고 여타회원들은 6,7마일 내외의 중장거리 코스를 바랍니다. 연령대별로 바라는 바가

상충되는 이런 점이 산행을 주도하는 리더 (통상 산악회회장)들을 어렵게 하여 오고 있는데, 추후 이런 문제는 산행지 선정 등을 통하여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컨대 낮시간이 긴 봄철이나 여름철에 조지아주에서 가장 높은 "Brasstown Bald Mt."코스를 선택 할 경우, 산행지 입구에서 고령자나 아이들은 정상 0.5마일 아래에 있는 파킹장까지 차를 타고 올라가며, 신체건강한 젊은 회원님들은 4.5마일거리의 가파른 트레일로를 등반하여 파킹장에서 합류한 후, 바비큐나 식사 등 소정의 일정을 같이하는 방법입니다. 그간 우리가 선호한 바비큐 파티 대상의 Pine Mt.이나 Dockery Lake Recreation Area와 Stone Mt.의 Grist's Mill코스 등이 전연령대의 회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장소라 생각합니다.



2023년 여름 Stone Mountain Park 의 Grist's Mill 에서 찍은 산악회원들의 아름다운 모습
여자들은 모두 예쁘고 남자들은 하나같이 씩씩하고 미남들이다.

골프 동아리



리더: 이재훈 (기계 78)

미 동남부 GREEN에 포효하는 고대 호랑이들의 골프 동아리

우리 교민 사회에서 골프는 가장 많은 인기와 참여도가 높은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우리 교우회도 다르지 않아, 1980년도 애틀랜타 교우회 최초로 회원명부가 작성되면서부터 교우들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골프 모임이 시작된 이래, 골프 동아리는 1994년 Golf 고연전 개최와 함께 본격적인 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3골프 고연전은 양교 각각 4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며 접전을 펼쳤고 그 결과 우리 고대가 우승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문상호 선배(작고)의 더블 이글(알바트로스)기념패

1980년대 초반, 매월 1회 이상 친목을 위해 진행하던 골프모임은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에는 한성우 (불문 65)교우가 다수 우승을 차지하는 이른바 골프 스타 교우가 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2001년도 8월에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상호(경영 59)교우가 PGA선수들도 힘들다는 “알바트로스”를 기록(Olde Atlanta

GC,12번, 파5,456야드)하는 장거를 보여 주었으며, 2010년도 서상희 (전기 74)교우는 Mystery Vally GC 17 번홀(파4)에서 이글 샷을 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고대와 연대의 골프모임이 활성화되자 서울대를 포함하는 대회로 확대되고, 이어 경희대 및 인하대도 참가하여 이후 8개 대학 토너먼트로 진행되자, 대학 모임만이 아닌 고등학교 모임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간단한 친목위주의 골프 경기가 생각보다 의욕이 너무 앞서가게 되어 대규모의 동아리 모임은 중단하게 되었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 하는 고대 교우회 골프 동아리로 거듭 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골프 동아리는 1994년 전종섭(59) 교우가 교우 단합 및 본교 장학금 모금 목적으로 “고려대학 총장배 애틀랜타 골프대회”를 발족한 이후 매년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2015년에는 이사장님 및 이사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이사장배 골프 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매해 거르지 않고 많은 교우가 참여하는 대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Bear's Best GC에서 연대와 고대가 각각 동시에 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교우들이 골프 동아리에 참여 하게 되면서, 고대 교우회의 끈끈한 선후배정이 넘치는 추억의 경기도 많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회 골프모임을 15년 넘게 이끌어온 서상희 교우의 이글기념패

2017년 7월 5일 고대 미 동남부 골프 동아리는 당시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은 문상호선배(지금은 고인이 되셨음)를 모시고 많은 후배들이 그 선배의 '쾌차와 오랜 기억'을 기원하는 골프 대회를 개최하여, 훈훈함과 정이 넘치는, 그야말로 고대 이외 타교에서는 볼 수 없는, 진정한 멋진 호랑이들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날의 골프 경기의 모든 교우 모습은 압권 그 자체였습니다.

초기 고연전 정식 종목이 아니었던 골프는 최초 고연전에서 농구, 배구, 소프트볼 경기로 개최해 왔으나, 기필코 승리하려는 양교 교우들의 과열로 경기 중 다수 부상이 발생하여, 1990년대 초 경기종목을 배구, 족구, 골프로 변경하며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94~2016 기간동안 고대가 대부분을 우승하자, 연대 측에서는 선수자격기준 제정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예로, 50학번 60학번은 각 학번별 2명, 여성 선수 필수로 포함 등 점수집계방식 개정을 요청하였고, 이후 2017, 18, 19 각 3년간은 연대가 우승하였습니다. 치열했던 고연전 우승을 위한 열기는 2020년 및 2021년 코로나 위기로 인해 개최가 불발되었으며 2022년은 연대가 다시 우승하였으나 2023에는 고대가 승리 탈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렇듯 양교의 밀고 당기는 친목은 이곳 애틀랜타의 교민들 사이에서도 따스한 눈빛과 미소로 부러움을 삼니다.

고대우승을 위해 골프모임에서는 월 2회 교우골프모임을 개최하여 팀워크를 다지고, 경기에 임박해서는 동일 코스에서 연습모임을 개최하였으며, 우수 골프 교우 확보를 위해 임원진의 항공료 지원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애틀랜타 교우 골프모임을 이끌어 온 송경석 교우가 고연전 골프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일례로 가족은 애틀랜타에 있고, 본인은 텍사스에서 혼자 살며, 원거리 교직을 갖고 있는 우수한 골프 인력인 김의수 (체육 95) 교우의 경우 항공료 지원을 통해 소환 하는 등, 주도면밀한 노력을 경주하여, 2024년 고연전 골프는 호랑이들의 압도적인 승리를 달성 하였습니다.

애틀랜타 교우회 골프 동아리는 많은 교우가 참석할 수 있는 발전방안으로, 그간 분리되어 진행되던 Senior 모임과 Junior모임을 통합하여 매월 1회 개최하고, 주중 참석이 어려운 교우를 위해 분기별 1회는 주말에 대회를 개최하는 방안 등을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한인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많은 교우들의 이주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골프모임의 향후 과제로는, 70/80학번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지하며, 90학번대 교우 및 00년도 이후 학번대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가 새로운 과제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



2017년 개최한 문상호 선배 래차 골프대회 참가자들. 앞에 문상호 교우 내외분과 뒷줄에 박순, 손철영, 신현덕, 한성우, 김종학 부부, 서상희 부부, 송경석 교우의 모습이 보인다.

사격 동아리

리더 : 안성호 (기계 78)

결성일 : 2023년 10월 1일

노림(Shooter's Ready),발사(Send it!),명중(Impact!!)의 세계: 사격 동아리

현재 사격 동아리: 안성호 (기계 78), 한문산 (전기 80), 홍윤 (경제 81)

사격은 사출물(화살, 탄환 등)을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시키는 '기술'입니다. 원래는 전쟁을 위한 군사적 목적의 기술이 점차적으로 스포츠화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계, 동계 올림픽에도 사격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격 동아리는 소화기 사격을 위주로 진행하는 동아리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Rifle과 Pistol 사격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Rifle의 경우, Bolt Action Rifle의 PR (Precision Rifle) 과 ArmaLite Rifle계열의 AR (Automatic Rifle)을, Pistol의 경우 9mm, .22LR등 다양한 구경의 Ammunition을 이용한 사격을 즐기는 교우들의 모임입니다.

사격 동아리의 경우,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미국이기에 가능한 동아리입니다. 다양한 총기류의 소지에 제한이 거의 없는 미국의 환경에 따라 한국에서의 군 시절 사용했던 총기, 영화 및 TV에서 보던 총기를 직접 사용해 보는 즐거움도 남 다르다 하겠습니다. 더욱이 저희가 살고 있는 Georgia주는 Shooter-Friendly-State입니다. 따라서 총기 구입 및 소지가 자유롭고 사격장도 Indoor Shooting Range, Outdoor Shooting Range 공히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저희 사격반은 연습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Wilson Shoals WMA는 GA주가 운영하는 Rifle 및 Hand Gun용 훌륭한 Outdoor사격 Range입니다. 낚시(Fishing) 또는 사냥 License만 구입하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간 낚시 License(년 \$15)을 구입하여 양질의 Outdoor Range를 이용합니다.

저희 사격 동아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엄격한 안전 규정을 준수합니다. 사격 동아리 활동 목적은 안전한 사격 환경에서, 연습 기회를 제공하여, 사격 기술을 향상하고, 같은 취미를 가진 교우들과의 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격 관련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 집중력과 인내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격은 집중력의 결정체입니다. Target 명중에서 오는 짜릿함을 여러분은 느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표적 사격의 도전을 즐기기 위해 함께 모인 열정적인 모임입니다. 사격술에는 집중력과 꾸준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총의 구입, 필요한 Accessory의 구입 후, 영점(Zeroing)을 잡으며 진땀을 흘리고,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기술을 다듬고, 호흡 조절을 배우며, 지속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표적 사격에는 항상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노련한 명사수이든 초보자이든 관계없이 정확성을 개선하고, 새로운 개인 최고 기록을 달성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격 동아리는 Sport Shooting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사격 후에는 총기 손질 일명 軍시절의 '兵器手入'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모든 주요 부품에서 사격 후 남은 탄소 알갱이를 깨끗이 제거하고 총열을 '꼬질대'로 문질러주고, 윤활유 등을 주입하는 총기 손질은 사격 못지 않은 열정과 재미를 Shooter에게 제공해 줍니다.

현재는 사격 동아리 결성의 역사가 일천하여 Rifle의 경우, 연습 및 숙달 사격을 진행하고 있으나, 본인 및 사격 동아리 목표에 도달 하면 300yard, 500yard, 1000yard등 장거리 표적 사격에 도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Pistol은 기본적으로 개인 방어용 화기이므로 Indoor/Outdoor의 근거리 표적에 정확도를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격 동아리의 또 하나의 즐거움, 장비에 대한 이해입니다. Bolt Action Rifle 소개: Bolt Action Rifle은 한번 발사 후 매번 노리쇠를 수동으로 당겨 다음 탄을 장전해야 하는 소총입니다. 보통 저격이나 사냥에 사용됩니다. Bolt Action Rifle은 비교적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다양한 종류와 구경이 있습니다. 명중율 향상을 위해서는 Accessory로 Rifle Scope, Bi-Pod, Tri-Pod등과 함께 사용합니다. Ammunition도 Short, Magnum 탄 등, 용도 및 거리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이에 최근의 Trend는 Ammunition 종류/용도에 따라 총열을 현장에서 간단하게 교환하는 '총열교체' PR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Automatic Rifle (ArmaLite Rifle 계열) 소개: AR은 반자동 또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총입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특히 군대와 경찰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AR은 비교적 빠르게 사격할 수 있으며, Front/Rear Sight, Carry Handle, 1배율~12배율 Scope, Laser Target 표시기, Lantern등 다양한 부품과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Accessory중, PR용 고배율 Rifle Scope는 먼 거리의 표적을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광학 기기입니다. 다양한 배율의 Scope가 있으며, 사격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배율의 Scope를 선택해야 합니다. 고배율의 Scope를 통해 Target을 들여다 볼 때는 초집중 하기에 주변의 소음과 일상의 잡념은 모두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또한 총 소음으로부터 귀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Head Set, 배출 탄피로부터 보호를 위한 보안경, Empty Chamber(약실 개방) Flag 등 안전을 위한 Accessory 등이 안전과 쾌적한 사격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저희 사격 동아리에 가입하면:

- 안전 교육을 수강하고 사격 규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 Bolt Action Rifle과 Automatic Rifle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 다양한 Pistol의 사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 경험 있는 교우들로부터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사격 동아리 분들과 교류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사격 대회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 Shooting Club은 모든 경험 수준의 사수를 환영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사격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사격 동아리에 가입하세요!

사격 동아리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사격 동아리는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선호도에 맞는 소총, 눈 보호 장치, 귀 보호 장치 및 사격장 환경에 적합한 편안한 복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초보자이든 약간의 경험이 있든 관계없이 우리 회원들은 교우들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 문의처: 안성호 (기계 78) 회장



우리 교우회의 명사수들: 왼쪽부터 이재훈, 한문산, 홍윤, 안성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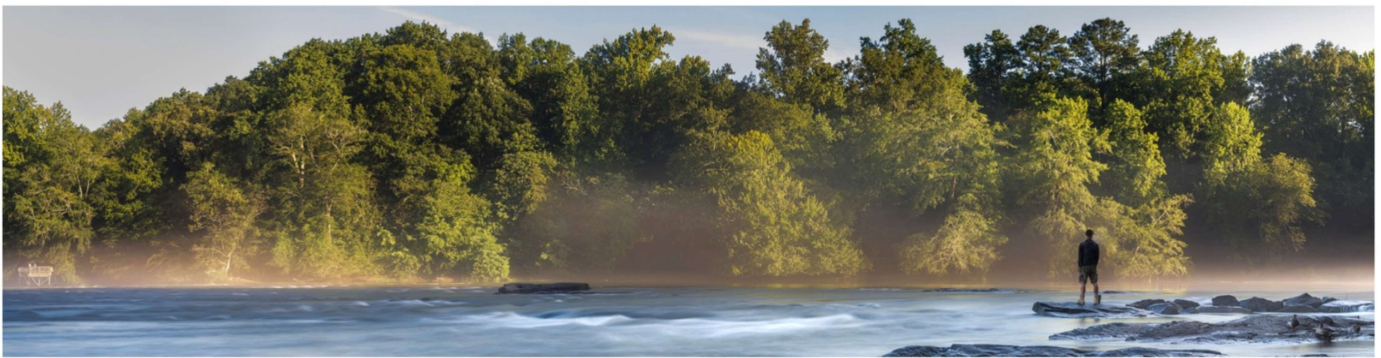
사진 동아리

리더: 홍윤 (경제 81)

결성일 : 2023년 7월20일

사진 동아리: 장마리아(간호 72), 안성호(기계 78), 이재훈(기계 78), 한문산(전기 80), 홍윤(경제 81), 이종원(재료 84), 김창훈(경영 89), 조은영(경영 92), 김수영(영문 95)

사진반 활동에 도움을 주시는 분: 교육 장소 제공, 이종원(사회 95) 교우 변호사



[A Morning Calm at Jones Bridge Park by 홍윤 (경제 81)]

빛의 예술, 사진

세상에는 다양한 예술분야가 있습니다. 이중 사진은 '빛'을 근간으로 다루는 예술 입니다. 이세상에서 보이는 모든 것은 빛의 반사에 기인합니다. 사진반은 이러한 '빛'에 관한 동아리입니다. 빛을 읽는 '눈의 능력'을 끌어 올리는 훈련 부터 시작합니다.

좋은 사진이란?

그럼 좋은 사진은 무엇인가?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저희 고대 ATL 교우회 사진 동아리는 1) Story Tells (스토리가 있는 사진), 2) Technically Sound(숙련된 기술이 포함 될 것), 3) Nobody has (자기만의 표현) 을 중심으로 사진을 촬영/후보정을 진행합니다. 사실 이를 위해 우리 사진 동아리는 사진을 촬영하기 전에 '내 사진이 표현하고자 하는 Story'를 생각하고, 어떤 표현 방법으로 진행할지를 미리 고민하며, 촬영 및 후보정에서 작가 본인만의 표현 방법을 연마합니다. 따라서 '그냥 멋있으니까, 좋으니까...' 라는 식의 불분명한 사진 개념은 지양되며, 철저히 계획되고 '지식 기반의 사진' 을 추구하여 고품질의 사진작품 완성을 도모합니다.

취미 생활로 사진의 의미

저희 사진 동아리는 다른 취미/여가/운동 대비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촬영이라는 ‘생각이 동반 되는 동적(動的) 활동’ 과 후보정이라는 ‘창작적인 정적(靜的) 활동’ 이 어우러져 궁극적으로는 사진 전시회 또는 사진집 발행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촬영을 위해서는 체력 및 집중력이 소요되며, 후보정을 위해 작가의 독창성 및 예술성을 연마하는 일련의 Detail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작가는 본인 작품은 물론 동아리 회원들의 작품으로부터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위에 언급한 일련의 과정은 Passion이 있어야만 지속적이기에, 사진반 동아리 회원의 Passion(열정)이 사진반의 주된 동력입니다.

동아리 활동이 이러다 보니 본인 작품으로부터의 희열은 물론 제반 ‘시각 예술’에 대한 안목 등 인문학적 지식 체계 역시 올라가게 됩니다. 회화를 감상하거나 시각 디자인 작품을 보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또는 작가의 관점에서 작품을 이해하는 능력이 배양되고 이는 인문학적 지식도 제고됩니다. 이는 나이가 들며 시간이 여유로울수록 많은 지적 호기심 및 만족감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고대 애틀랜타 사진반 태동

이러한 사진의 여러가지 매력을 우리 고대 애틀랜타 교우들과 함께 하고자, 2023년 7월20일 이종원 (사회95) 변호사 사무실에서 동아리 결성 및 첫 수업 ‘Digital 사진의 이해’, ‘Digital 사진-작업 편’, 및 ‘Digital 사진-후보정편’을 시작으로 월 1회 Classroom 교육 + 월1회 촬영 활동을 통해, 작가 개개인의 사진 역량을 끌어 올림과 동시에, 출사 자체를 즐거운 취미 활동으로 연결하여 의미 있는 동아리 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Brilliant Man Steps Out by 안성호 (기계 78)]

현재 활동

우리 사진 동아리 목적이 이리므로, 8bit의 Jpg File로 촬영하는 Phone Camera 사진은 후보정시 여러가지 제약이 있기에 우리 사진 동아리는 14/16Bit의 RAW File로 촬영 가능한 Digital Camera으로 촬영하며, Digital 현상은 Adobe Camera Raw로 진행하고 마무리는 Photoshop으로 최종 사진을 완성합니다. 따라서 카메라의 이해, 촬영 기법 공부에 더해 후 보정 작업을 위한 Computer 지식 및 Software를 다루는 능력의 부단한 Study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은 35%, 후보정은 55%, 인쇄 등 마무리 활동 10% 정도의 비중으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가 개개인의 관심 분야에 대한 촬영/표현/후 보정 등 작품 활동 전반의 깊은 논의, 협의를 통해 완성도 높은 작품을 꾸준히 발표 중에 있습니다.

이미 첫번째 사진전은 2023년 12월 3일, The Standard Club에서 5명의 작가가 데뷔전을 치르고 다양한 주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사진 동아리는 주요한 교우회 활동을 촬영, 정리/보관을 통해 교우회 '기록'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다음 세대의 고대 교우들이 이전 세대의 활동을 직접 보며 느끼기를 기대 합니다.

향후 활동 방향

지속적인 사진 관련 지식 및 기술 축적은 물론 정기적인 전시회 및 사진집 발간을 통해 작가 개개인의 사진 예술성을 한단계 Upgrade하기 위해 평범한 해외여행이 아닌 분명한 목적과 결과물 도출을 위한 해외 출사/국내 출사 등 폭 넓은 활동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높아진 안목은 시각 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작품 이해도의 제고와 연결되어, 고전 및 현대 미술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교우회 및 ATL Community 내 사진 활동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진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우회 및 Local Community 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 하고자 합니다.

사진전 및 사진집 발행

사진의 마지막 Goal은 인쇄하여 전시하거나 사진집의 책자를 발간 함에 있는 바,

작가 생애 첫 전시가 되는 사진반 정기 전시회는 매해 12월 교우회 송년회에 진행 하며, 개인적으로 개인전 및 사진집 발간을 위해 함께 상부 상조하며 친목을 다집니다.

이렇듯, 우리 사진반은 사진을 통해 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작품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독려하며 궁극적으로는 작가의 손에 결과물이 쥐어지게 되어 만족도를 극대화 함에 Mission을 갖고 있습니다.

사진을 예술의 한 분야로 인지하여 촬영을 작가 표현의 목적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또는 여행을 가더라도, 가족 사진을 찍더라도 사진 동아리는 사전에 스토리를 고민하고, 어떤 기법으로 촬영/후보정을 할 것인가 그리고 최

종 사진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를 위한 Study를 하며 그 활동(여행 및 가족 행사 등)이 끝났을 때 남게 되는 독창적인 사진 작품은 두고두고 추억과 만족을 느끼게 하는 동아리가 바로 사진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우회의 사진작가들: 김창훈 조은영 부부, 안성호 부부, 홍윤 이혜숙 부부, 한문산 부부, 이재훈 부부



애틀랜타 출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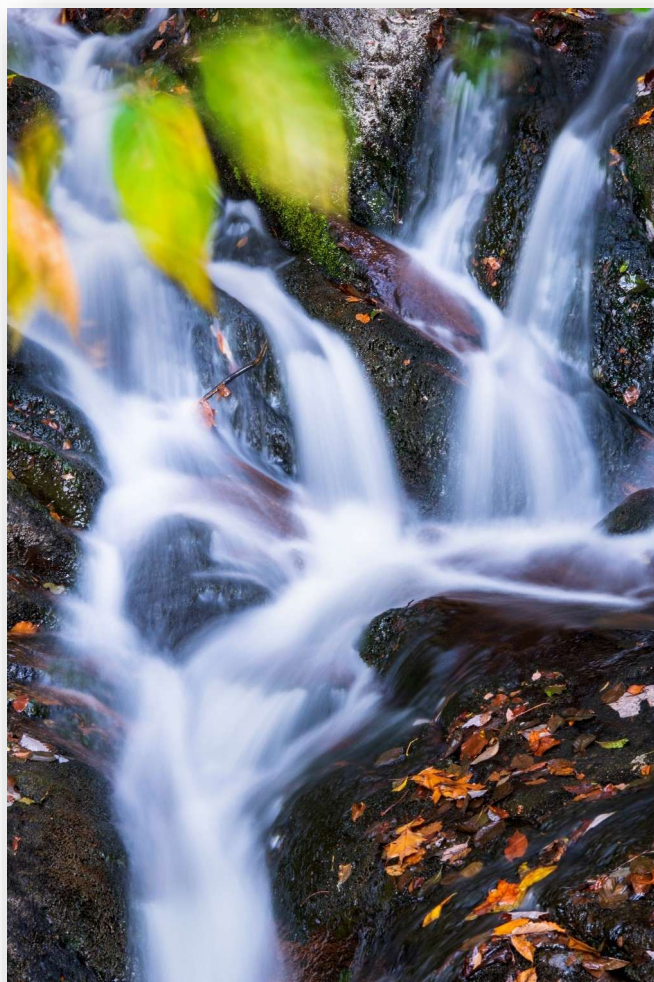


왼쪽부터 홍윤, 이재훈, 한문산 교우

[고려대학교 미 동남부 교우회— 사진 동아리-제1회 사진전 작품 (2023년 12월)]



[Morning Glory by 장마리아 (간호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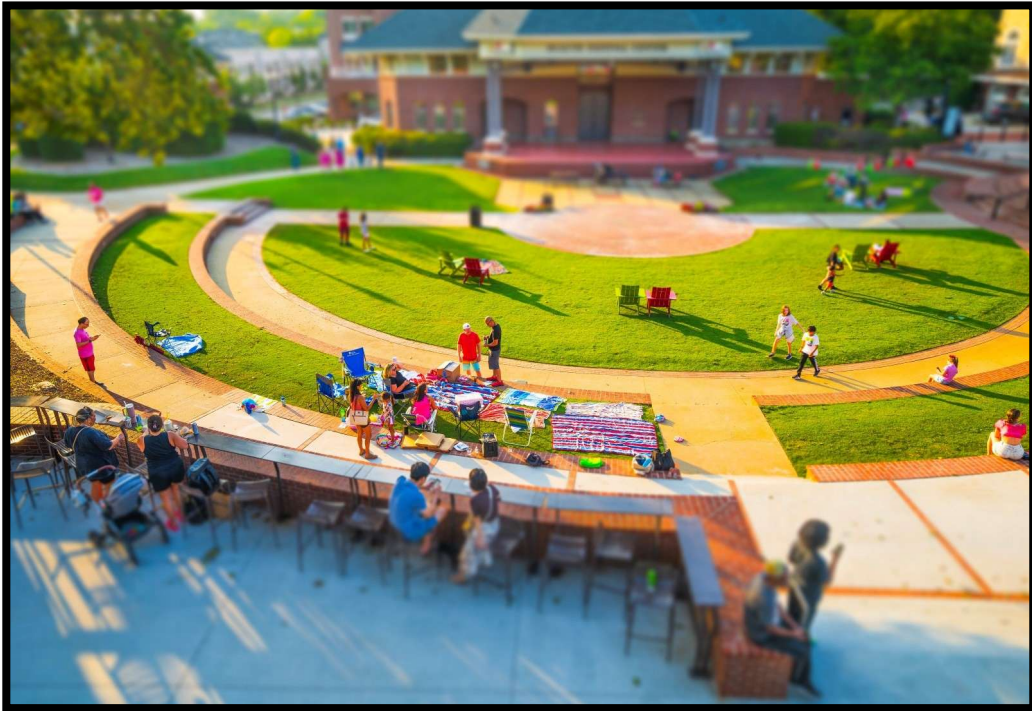
[Autum Falls by 이재훈(기계 78)]



[고요한 새벽, 희망의 비상 by 안성호 (기계 78)]



[Strange Formation by 한문산 (전기 80)]



[Duluth, Our Good Neighbor Hood by 홍윤 (경제 81)]



[A Solitary Park in the Early Morning by 이종원 (재료 84)]

고대 여학생 교우회 (여우회)

간호학과 동아리와 고대 여학생 교우회 (여우회)

고대 ATL 간호학과 교우에 의한 부정기적 친목 모임이 활기를 띠면서 ATL내 고려대학교 여자교우회가 창설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5년경 당시 여자 교우회의 Leader격이던 장마리아 교우와 이혜옥 교우를 주축으로 성기영(가정 77), 박금주(영교 81), 카렌장(수교 82), 서영란(영교 83), 이혜숙(통계 83), 조은영(경영 92), 김정은(사회 93), 김종윤(가교 93), 김수영(영문 95), 김경화(법학 96), 최은란(경영 03), 문우림(불문 07)등이 참여하는 '여우회'가 창설되어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점심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희망하는 활동 방향

ATL 간호학 교우 및 여자 교우회는 향후 ATL를 방문/이주 하는 교우들의 정착에 발 벗고 나설 계획이므로 언제든지 교우회장 또는 장마리아 회장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교 간호학과 Donation / 장학금 진행 (KU PRIDE 등)은 매월 일정액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미주 총연 간호학과 교우들과 발 맞추어 확대 추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Emory 대학의 고대 교우회



추효정 (생명산 99)

Emory 대학 고대출신 첫 교수는 2000년에 Georgia Tech-Emory 협동프로그램인 Biomedical engineering과에 부임한 조한중 교수 (축산 77) 입니다.

2002년에 최인영 교수 (생물 80)가 Physiology과에 부임하고 고영미 박사 (생물 82, 현 의과대 교수)가 박사후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3명의 고대출신 Emory 연구자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작은 모임은 적어도 1년에 한번씩 모여서 서로 연구이야기와 담소를 나누게 됩니다.

2011년부터는 Emory에서 일하는 여러 박사후 연구원과 박사과정 학생들이 모임에 참여하게 되고 현재는 6명의 교수, 8명의 박사후 연구원, 5명의 박사과정 학생들이 있는 규모 있는 모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Emory 고대모임의 특징은 많은 수의 모임멤버들이 의학생물학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학생부터 박사후 연구원 그리고 교수들의 참여가 활발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조언하고 공동 연구할 수 있는 모임이 되어 고대 출신들의 진로와 연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Emory 대학에 연수 오시는 본교 출신 교수들과 연구자들도 이 모임을 통해 서로 알아가고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mory와 모교와의 학술교류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앞으로 Emory 고대 연구자모임은 정기세미나 등을 통해 공동연구 기회를 넓히고 후배양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주정숙(의학 65)

들포도

초 가을 산책 길에서 우연히 만난 그대

잡목들과 엉겅퀴에 가리워져 있어도

금방 눈에 들어오는 낯익은 얼굴

아침 이슬 머금고 한 낮의 불별 담아서

두꺼운 껍질이며 투박스러운 빛깔이

나의 모습 닮아 있어 멈춰진 발길

목 메이던 눈물 자국 가슴에 깊이 묻어

대신 울어 주는 산새들

손짓하며 아른거리는 저녁 노을 쳐다 보며

그렇게 들포도는 숨어서 익고 있네

내가 감상하는 “신세계 교향곡”

이광언 (경제 65)

저는 음악을 사랑하는 미국 이민자입니다. 당연히 미국의 노래와 음악가들을 좋아하며, 마이클 잭슨의 춤과 팝 음악은 늘 저를 즐겁게 하고, 닐 암스트롱의 트럼펫 연주와 재즈 음악은 언제 들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조지 거윈의 흑인 영가와 재즈 선율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애잔하면서도 경쾌하고 유머러스한 여러 곡들 또한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하지만 제가 미국과 미국인을 노래한 음악 중 최고로 꼽는 것은 안톤 드보르자크가 작곡한 신세계 교향곡입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현재의 체코) 출신으로 49세에 뉴욕에서 미국 생활을 시작한 그는 130여 년 전인 1893년에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1악장에서는 그의 새로운 세상이었던 미국에 대한 첫인상, 즉 경이로움과 신비함을 표현했고, 2, 3악장에서는 이민자로서 고향인 유럽 중동부 보헤미아에 대한 향수와 애뜻함을 담았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심취해 온 4악장은 그의 신세계였던 미국의 장대하고 웅장한 자연을 찬미하며 미국인들의 진취적인 기상, 당당함, 자랑스러움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곡을 처음 들은 것은 65년 전, 제가 중학생이었던 1958년 가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른신이 모처럼 사 오신 소형 라디오를 통해 우연히 듣게 된 서양 음악, 클래식이 바로 신세계 교향곡이었고, 4악장의 선율이 너무나 아름다워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후 이 4악장의 선율을 다시 듣기 위해 오랫동안 KBS와 기독교 방송국의 음악 프로그램, 명곡 해설 프로그램 등을 거의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명곡의 세계, 음악 감상의 세계로 빠져들었고, 음악은 이후 제 삶의 질을 넓히고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를 음악의 세계로 이끌어 준 훌륭한 음악가 드보르자크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이곳 미국에서 산 지도 어느덧 25년이 되어 갑니다. 앞으로 저의 아이들, 손주들이 이곳 미국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의 자손은 물론, 제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고대 교우회 회원님 및 회원님들의 2세, 3세 후손들도 이곳 미국에서 자연을 즐기면서 신세계 교향곡 4악장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합니다.

고대인의 끈끈한 정

이순재 (화학 61)

저는 61학번 이순재라고 합니다. Argentina 여행 중 느꼈던 고대인의 따뜻하고 끈끈한 정을 혼자 간직 할 수 없어 이 글을 씁니다.

오래전부터 염원했던 남미 Patagonia Trekking을 정년퇴직 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가까운 시일 동안 계획했던 일이어서 여러가지 준비는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우리 일행 중에 Spanish 를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불안하고 걱정스러웠습니다. 일단 El Calafate (Argentina 쪽에 있는Patagonia 의 한 도시)에 도착한 후의 일정은 대부분 예약을 했고, 산에 들어가면 Refugio나 캠핑을 하면서 Trekking 을 할 수 있게 계획을 했으나, Buenos Aires 국제 공항에서 국내선 공항으로의 이동 그리고 Hotel 선정 등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다 생각해 낸 것이 지금이라도 Spanish를 공부하기로 하고 CD를 사서 몇 주를 노력해 보았으나 너무나 촉박한 시일 때문에 난감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생각난 것이 우리 고대 Argentina 교우회에 부탁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우선 kuamerica.org 에서 Argentina, Buenos Aires 동문회 주소를 찾아 Email을 보냈습니다. 뜻밖에도 Email 보낸 지 몇 시간 만에 Buenos Aires에 있는 이효성 교우 (67학번)로부터 우리를 도와 주겠다는 Email이 왔습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염려가 한번에 해결된 것 같아 내가 고대인이라는 것이 동행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출발전에 여행 복장 입은 나를 사진에 실어 이효성씨께 Email을 보냈습니다.

2012년 3월 26일 드디어 꿈에 그리던 Patagonia Trekking을 위해 Buenos Aires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미지를 향한 약간의 흥분과 동시에 불안한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여행을 계획한 나로서는 책임감까지 겹쳐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10시간의 야간 비행은 점점 지루하고 긴 여행으로 느껴졌습니다. 입국 절차, 세관 등을 거치다 보니 착륙 후 거의 1시간 반이 지나서야 출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출구에 나오니 이효성씨가 먼저 알아보고 손을 흔들면서 다가오는데 몇 십년 간 알고 지내던 친구같이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인, 우리 고대인의 정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이효성씨가 운전하는 차로 시내를 구경하면서 Argentina 내 한국인의 역사적 배경, 사회문제 등 폭넓은 안내를 받으며 한인들이 밀집해 사는 한인 Town에 들러 한식으로 점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몰라 우선 내가 가지고 있던 고대 Logo가 새겨진 몇 가지 기념품을 전달하고 국내선 공항(AEP)으로 향했습니다. 차 창으로 보이는 Buenos Aires 의 화려했던 옛날과 계속되는 경제 퇴보로 인하여 잘 관리되지 않은 모습들이 선명하게 보여졌습니다.

우리는 AEP 공항에서 Ushuaia(지구상의 최남단 도시)로 향했습니다. Ushuaia 에서 4일 산행을 하고 El Calafate 를 거쳐 Cerro Torre와 Fit Roy가 있는 El Chalten을 여행 후 Chile로 넘어가서 Torres Del Paine 국립공원을 거쳐 Moreno 빙하를 마지막으로 Buenos Aires로 돌아 오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여행 후 AEP 공항에 도착하니 이효성씨가 다시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닙니까?

베풀어주는 호의를 감사히 받으며 호텔에 도착해서 잠깐 쉬고 있는데, 당시 Buenos Aires 고대 동문회 회장을 맡은 이무진씨 (68학번)가 찾아왔습니다. 함께 시내 야경을 구경하면서 Buenos Aires 고대 동문회 와 Atlanta 교우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후 어둑어둑해진 창밖을 보면서 그동안의 여행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가파르게 경사진 비탈길, 사람을 쓰러뜨릴 정도의 강풍, 하루에도 사계절을 맛 볼 수 있던 날씨, 귀여운 펭귄들, 웅장하면서도 하늘을 찌를 것 같은 바위산들, 사진으로는 표현 할 수 없는 장엄하면서도 섬세하고 조화된 바위산, 곳곳에서 흐르는 크리스탈 같이 깨끗한 물, 단풍 진 Lenga Tree 숲, 빙하 녹은 비취색 호수들, 이들 각각 서로의 조화, 무엇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여행은 힘들었지만 내 일생에 가장 아름다운 여행 중 하나로 기억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세계 어디를 가나 고려대학이라는 끈끈한 고리로 연결된 우리 고대 동문들의 상호협조와 도움의 결집력은 타의 부러움을 받는다는 것을 느끼면서, 특히 이번 여행이 Argentina 교우들의 아름다운 우정으로 시작해서 잘 끝맺음을 할 수 있었기에 더욱 기억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효성씨와 이무진씨께 감사드리며 Argentina 교우회의 발전을 빕니다.



파타고니아의 Torres del Paine National Park

삶의 왈츠, 고대의 혼 (Gustav Mahler 교향곡 1번 3악장)

안성호 (기계 78)

말러는 3악장에서 삶의 무게를 묵직한 더블베이스와 팀파니로 표현합니다. 힘겨운 이민 생활, 치열한 경쟁,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삶의 무게는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막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말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밝고 경쾌한 클라리넷과 바이올린 선율은 마치 삶의 뜻밖의 즐거움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힘든 순간에도 잃지 않는 유머 감각, 어려움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행복들. 이처럼 말러는 삶의 양면성을 드러냅니다. 낯선 땅에서 힘든 생활을 견뎌낸 우리 교우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지 않나요? 때로는 슬픔에 잠기기도 하지만 함께 모여 웃고 떠들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우리 교우회의 모습은 말러의 음악처럼 결국에는 삶의 아름다운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말러는 3악장에서 삶과 죽음을 왈츠에 비유합니다. 왈츠는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며 춤을 추는 것처럼, 삶과 죽음은 끊임없이 서로를 마주하며 춤을 춥니다. 삶은 죽음을 통해 의미를 얻고, 죽음은 삶을 통해 가치를 얻습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의 왈츠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힘든 순간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기도 하지만, 우리는 삶의 끈을 놓지 않고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고려대학교 애틀랜타 교우회는 우리에게 삶의 왈츠를 함께 출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힘들 때는 서로에게 기대어 위로를 받고, 기쁠 때는 함께 웃으며 행복을 나눕니다. 말러 교향곡 1번 3악장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우회는 삶의 왈츠를 아름답게 이어나갈 것입니다.

말러는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여 풍성하고 입체적인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등 각 악기가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음색은 우리 삶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말러는 이 곡을 통해 삶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보여주고, 힘든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온 우리 교우들은 저마다의 개성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려대학교라는 공통점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러의 음악처럼,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우리 교우들의 모습은 말러의 음악처럼 아름답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애틀랜타 교우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교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수영 (영문 95)

고 이종연(李鍾淵) 선배님을 기억하며

조지훈 선생님을 만난 피난길, 맥아더 장군 통역관이 되다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48학번 이종연 선배님은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6.25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황해도 연백에서 좌익의 영향력이 커져 어머니와 함께 서울로 피난 오셨고, 고려대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그러나 전쟁 발발로 학업을 중단하고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피난길에서 우연히 조지훈 선생님과 고려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얼마 전까지 선생님께 시 창작 강의를 들었던 선배님은 전쟁이 끝나면 계속 강의를 듣고 싶어 했고, 조지훈 선생님은 다음 학기에 '두시연해'를 들으라고 권하셨습니다. 곧 전쟁이 끝나리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선배님은 광주로 피난 가 그곳에서 고려대 경제학과에 다니던 정하택, 계봉혁 두 친구를 만났습니다. 세 친구는 함께 대구로 내려가 학도병으로 지원했습니다. 대구 시청 앞 게시판에서 미군 부대 통역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영어 시험을 보았고, 선배님은 미 해병대에 배속되어 통역병으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장진호 전투의 참혹함과 '고토리의 별'

선배님은 장진호 전투의 참혹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동이 트면 별판에 쌓인 수백 구의 중공군 시체들, 건딜 수 없이 참혹한 강추위 속에 얼어붙은 미 해병대원들의 시신들. 선배님은 생존한 장진군 피난민들의 송년회에서 술잔을 돌리며 회포를 풀다 어떻게 피난을 왔는지 알기에 서로 눈만 마주친 채 한밤을 지새운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토리의 별'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1950년 12월 7일 초저녁, 험악한 계곡인 황초령에서 진흥리까지 항공 지원이 불가능한 악천후 속에서 기적적으로 나타난 별은 다음 날부터 진군하는 해병들을 호위하기 위해 비행기가 해병들 머리 위로 저공 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의 상흔과 역사 왜곡에 대한 우려

2024년 4월, 선배님은 병색이 완연했지만, 애틀랜타에서 상영한 영화 <건국전쟁>을 두 번이나 보셨습니다. 영화 속 폐허가 된 서울, 폭격으로 무너진 한강 다리, 끝없는 피난민 행렬, 장진호의 혹독한 추위 속에 스러져간 젊은 군인들의 모습은 선배님에게 깊은 상처를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선배님은 전쟁의 상흔을 잊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기억에 괴로워하셨습니다.

니다. 또한, 2021년 개봉된 중국 영화 <장진호>의 역사 왜곡에 대해 거듭 언급하며 6.25 전쟁이 잊혀진 전쟁이 아닌, 다음 세대에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영웅의 마지막 가르침

선배님은 병원 입원 직전까지 6.25 전쟁에 대한 증언을 준비하셨습니다. 장진호 전투 '고토리의 별'과 미 해병대를 따라 피난길에 나섰던 하갈우리의 주민들, 흥남 철수 작전과 흥남부두를 떠나 피난민들을 태운 메리더스 빅토리아호에 대해 말씀하시려 했습니다.

선배님은 늘 유머 감각을 잃지 않으셨고, 시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즐기셨던 신사였습니다. 20대 초반 젊은 나이에 겪은 전쟁의 상흔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던 선배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의미를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배님 같은 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생명의 빛을 지고 있는지 생각하며, 그 희생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선배님의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삼가 호국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피로 지켜 주신 자유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애틀랜타에서

후배 김수영 올림



수필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서원철(화학 77)

지난 며칠간 더운 날씨에 오르막길을 걸어선지 아내가 다소 기가 빠졌다. 아파도 식욕 한 번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먹는 것도 영 시원찮다. 더위를 먹은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스페인의 강렬한 햇볕을 가능한 피하고자 해뜨기 전 이른 새벽에 출발했다. 어느 정도 걸으니 산 위 먼 곳에서 동이 터온다.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다. 그동안 미국에 살면서 언제 이렇게 여유롭게 동이 트는 광경을 본 적이 있었든가? 그러고 보니 지난 미국 생활 36년 직장 생활 하랴, 아이들 키우랴, 바쁘게 앞만 보고 살아온 것 같다.

올 한 해는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좋은 일로 가득하다. 둘째 딸과 셋째 아들이 결혼했고, 그리고 한 달 전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했다. 아이들 셋 다 결혼시키고, 꿈에 그리던 은퇴까지 하고 나니, 어깨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날아갈 것 같다. 아내와 결혼하고 둘에서 시작해 아이 셋 낳고 다섯이 되었다가 다시 둘이 되었다. 아내와 단둘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프랑스 생장에서 출발하여 산티아고 길을 걸은 지 벌써 28일째, 앞으로 산티아고까지 6일을 남겨두고 있다.

그 동안 산티아고 걸어온 길을 돌아켜보니 지나온 여러 광경이 필름같이 돌아간다. 첫 날 안개 끼고 바람 부는 피레네산맥의 아름다운 산 풍경부터, 끝없이 펼쳐지는 시골 포도밭과 밀밭의 풍경들, 언덕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소와 양 떼들의 평화로운 모습 들, 길가 가득 핀 짙은 진홍빛의 양귀비꽃과 각종 들꽃... 아~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 아내도 “꿈같다” 말한다. 아마도 짧은 기간 동안 먼 길을 걸으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새로운 경험들을 해서 그렇지 않을까? 매일매일 걸으면서 스페인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고, 산티아고 길의 수많은 마을을 지나며, 카페와 알베르게(여럿이 같이 자는 호스텔)에 머물며 스페인 음식을 맛보고,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 나누었던 여러 가지 일들은 나와 아내에게 특별한 경험이지 않을 수 없다. 워킹 머신(?)처럼 걷고 걷는 것이 일상이지만 매일 매일이 다르고 새로운 풍경과 만남에 너무 재미있고 즐거운 여행이다.

산티아고 여행길의 큰 즐거움 중의 하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다. 언어가 다르고 나이가 차이 나도 목적이 같은 길을 걷기에 쉽게 친구가 된다. 산티아고 길은 중간중간 순례자들이 숙식할 수 있는 알베르게가 있고 걷다가 쉴 수 있는 카페가 많다. 걷다 힘들어 잠깐 쉬면서 마시는 커피 한 잔에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같은 알베르게에 하룻밤 머물면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나눈다. 이탈리아에서 온 이름이 ‘게브리엘’란 친구는 자기 아들이 1년 반 전에 심장마비로 쓰러져 자기가 심폐 소생술을 했지만, 보는 앞에서 죽었다. 아들 이름이 산티아고이고, 죽은 아들을 생각하며 이 길을 걷는 단다. “왜 아내와 같이 안 왔냐?”물으니, “아내는 근육감소증으로 같이 못 왔다” 며 눈물을 글

썩었다. 그의 아픈 마음이 느껴져 눈물이 난다. 이 외에도 브라질에서 온 엄마와 두 아들이 산티아고를 걸으면서 사이가 좋아진 이야기, 독일에서부터 출발해 2개월 동안 배낭 메고 걸어온 78세 리아와 81세 레아 할머니의 대단한 이야기, 이혼 후 실연을 딛고 산티아고를 걷는 필리핀에서 온 76세의 프랭크의 이야기, 아빠가 8개월 아기를 등에 메고 4살 아이를 카트에 끌고 가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젊은 부부 이야기,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왔다는 브라질에서 온 검사 카렌과 가족 이야기, 대학 졸업을 앞두고 휴학하고 앞으로의 인생을 고민하는 한국에서 온 젊은 친구들 등등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친구가 된다. 어떤 여행에서 이렇게 쉽게 많은 친구를 사귄 수 있을까?

오늘은 출발 34일 째, 드디어 Santiago de Compostela 에 도착했다. 그동안 우리가 800여 킬로를 걸어왔다는 사실이 잘 믿기지 않는다. 사실 산티아고를 준비하면서 설렘이 훨씬 컸지만, 마음 한편으로 조금의 걱정이 있었다. 이렇게 많이 걸어본 적이 없는데 다리가 괜찮을까? 아내가 탈 없이 끝까지 걸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 목적지 산티아고 대성당까지 왔다. 아내와 나는 서로 “수고했다.”라며 기쁨을 나누었고, 정말이지 큰 탈 없이 와 준 아내가 고맙다. 사실 이곳에 오기까지 발과 무릎이 아파 걷기 어려울 때도 많았고, 더위를 먹어 힘들 때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기쁨과 뿌듯함이 더 크지 않을까? 우리 부부가 산티아고를 한 번 가보고 싶다고 마음먹었던 때는 어느 60대 중반 지인의 산티아고 사이클 여행에 도전을 받고서였다. 지난 한 달여 넘게 산티아고를 걸으면서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걸었던 것 같다. 그런데 여정을 마치면서 마음속에 남는 두 단어가 있다. 하나는 도전이고 또 하나는 배움이다. 산티아고는 아내와 나에게 새로운 도전이었고 이 도전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다. 특별히 산티아고 길에 만난 여러 사람들을 통해 많은 도전과 배움을 얻었다. 산티아고 먼 여정을 마쳤는데도 아직도 발걸음 소리가 생생하다. 계속 걷고 있는 것 같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 나에게서는 은퇴 후 인생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 마치 이 마을 저 마을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는 심정이다. 나의 발걸음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사랑하고 도전하고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

산티아고 도착 다음 날 아침 산티아고 대성당 지하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유해가 묻힌 곳을 보기 위해 걸어가는데 반가운 두 얼굴을 만났다. 우리가 프랑스 생장에서 같은 숙소에서 자고 같이 출발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부부 Matt과 Cathy다. Leon까지 서로 자주 보면서 왔는데, 우리가 Leon에서 하루 더 머물면서 헤어진 후 두 주 만에 만난 것이다. 서로 너무 반가워 껴안고 이곳까지 온 것에 감격해 하며 그간의 소식을 서로 주고 받았다. 그들로부터 Leon 이후로 만나지 못했던 많은 친구들 소식을 들으니 그리운 얼굴들이 떠오르며, 그동안의 느꼈던 감동이 다시 한번 밀려온다. 산티아고는 도전과 감동의 길이요, 또 낭만이 넘치는 길이다. 걸으며 사람들과 수없이 주고받았던 정겨운 인사 “Buen Camino !”(즐거운 여행 되세요)를 나 자신에게 건네본다.

“ Buen Camino! ”



박세당

김정은(사회 93) 가족

엄마와 나의 고려대학교 놀이터 이야기

우리 가족은 미국에 오기 전, 우리는 돈암동에서 살았어요. 고려대가 집에서 가깝기는 했지만, 걸어서 갈만한 거리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기를 좋아하시는 엄마와 아빠 때문에 저는 주말마다 자주 고려대에 걸어가 놀러 다녔어요. 걷기는 싫었지만, 아빠가 맛있는 것을 사준다는 꼬셔서 갔어요. 나는 참살이길에 있는 동우 설령탕을 좋아했어요.

제기시장에 있는 국수집의 김밥도 맛있었어요. 중앙광장에서 쌍쌍카를 타기도 하고, 배드민턴을 쳤어요. 엄마의 놀이터가 나의 놀이터가 되었던 것이죠.

“엄마는 고려대학교 옆 종암동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해요. 엄마는 어린 시절 고려대에서 놀았다고 자랑스러워 했어요. 어렸을 적 놀이터였던 곳에서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다니 참 엄마는 왜 그랬을까요?”

미국에 와서는 엄마를 따라 고려대학교 교우회 모임에 나갔어요. 거기서 등산을 하고 피크닉도 하고, 심지어 고연전에 참가하기도 했어요. 미국에서 고려대학교 교우회는 또다른 나의 놀이터가 되었어요.

엄마와 공유한 고려대학교 놀이터의 이야기는 저에게 자부심과 기쁨을 줍니다.





작가: 이혜옥 (간호 74), 清香

이혜옥 교우는 도미한 이래 30년이 넘어, 도라빌 한인 성당의 그림 동아리 묵향회 (지도작가 : 백학기)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래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이혜옥 (간호 74)



[솔 가지 그늘 속 백로 한 쌍]

작품설명	솔 가지 그늘 속 백로 한 쌍, 45.44 X 34.29 in, 사실적 Detail한 동양화 보다는 작가만의 '동양화의 반 추상적 표현' 기법을 추구 동 작품은 작가의 3번째 발표회에 출품된 작품.
작가노트	작은 가지 그늘 속에서도 쉬어 가는 부부 학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함. 우측 상단의 해가 비출 때, 소나무 전체가 아닌 가지라는 일 부분만을 표현하여 인생의 쉼터는 그 크기와 관계없이 언제나 중요함을 표현하고자 함. 2마리의 학은 부부를 상징하며 사나운 표 정의 학과 따뜻한 시선의 학을 조화롭게 표현함.



신재연 작가

Mrs. 추경학(기계 02)

작가: 신재연

Savannah College of Art and Design, 애틀랜타 (2016)에서 회화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주로 종이, 펜, 수채화. 아크릴. 오일파스텔, 아시아 종이 콜라주 및 다양한 매체들을 사용하여 기억, 복잡한 감정 및 생각, 낙약함, 예민함을 작품에 표현하는 작가이다.



[Poach in Silence]

작품 설명	Poach in Silence(조용한 침략), 100x 80 cm, Gouache on Paper (종이 위에 과슈), 2022.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작가노트	우리의 삶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적응해 나가는 노력이 무색할 만큼 변화가 빠르다.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개인은 고립감과 불안을 느끼고 초조함과 강박을 느낀 나머지 거기에서 오는 부정적인 시각 감정 기억들을 계속해서 생성해 나간다. 작품속에 등장하여 여러 관계를 형성하는 다양한 사물과 환경은 타인이자 개인을 나타내는 매개체이다. 이러한 갈등에서 오는 관계를 통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내면의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요약)



송경석(농화학 74)

이혜옥 (간호74)

부부 고대인

대학을 입학하고 사귀던 과 친구들과 “신입생 환영회”라는 포스터를 걸어 놓은 교양학부에 있는 게시판에 지나가다가 눈에 들어오는 문구가 씌어져 있는 유네스코 학생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혼자면 독서, 둘이면 대화, 셋이면 합창, 넷이면 운동” 이라는, 그 중에서도 “넷이면 운동” 이라는 문구와 함께 “4개 대학 체육대회”를 한다는 포스터가 제 맘에 쏙 들어 왔습니다. 같이 가던 친구도 맘에 든다며 이 모임에 같이 가입 하자고 하여 친구들과 입회 원서를 쓰고 회원으로 가입 한 후 “4개 대학 체육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체육대회가 끝난 후, 뒤풀이로 식당에 모여 삼삼오오 안면 있는 사람끼리 앉아서 “둘이면 대화”를 실천하던 중, 새로 가입한 1학년 신입회원의 간단한 자기소개 시간이 있었고 행사 후기 평가를 한 후 헤어졌습니다.

며칠 후, 신입회원 단합모임을 한다고 서울 교외로 경외선 열차를 타고 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일영에 가던 중에 옆에 있는 여학생에게 처음 뵈겠다고 인사를 하는데, 그 여학생은 구면이라면서 “4개 대학 체육대회” 때 한번 인사를 했었다고 하는데, 못 알아본 내 자신이 얼마나 무안하고 창피한 지, 미안한 마음에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것이 우리의 첫 만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정치적으로 어려워지며 학교 분위기도 어수선했다. 모임실에서 몇몇 회원들과 “둘이면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 여학생이 잠깐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둘이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간호학과 개강파티에 함께 갈 남자 친구가 없는 자기 친구 2명을 포함해 3명의 파트너를 소개해 달라”고 합니다. 평소에 회원들과 스스럼없이 잘 지내고 예쁘고 귀여운 모습에 당연히 남자 친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여학생이 남자 파트너를 소개해 달라고 하니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습니다. 파트너를 소개해 주고 파티 후에 우리 둘만의 만남을 제안하여 만남을 이어 갔습니다.

이때에는 모임에서 남녀 회원 간의 연애 데이트를 금지하던 때라 우리의 남 몰래 만남은 항상 긴장과 애뜻함이 함께하며 설렘과 아쉬움이 함께 하는 연애를 7년간 지속하다가 1980년 봄에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가정을 꾸린 후 성격 차이로 대립하다가도 지난 연애기간의 즐거움과 애뜻함을 상기하면 곧 화내고 말다툼한 싸움을 후회하며 화해하곤 했습니다. 이제 결혼한지 4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친구로, 부부로 다정히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1981년에 이곳 애틀랜타에 온 후, 두 딸을 얻었고, 장녀는 NY에서 혼자 직장 생활 하고 있고, 둘째는 사위와 손자와 함께 Nashville, TN에서 살고 있습니다.

입시렌티 체이흠!!!!



마스코트

환호(Hwanho)

기쁨 환(歡)/부름 호(呼)

범 호(虎)

승리의 기쁨과 성취를 부르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고려대학교 호걸

승리의 기쁨과 성취(CHEERS)로 가득 찬 호랑이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고려대를 상징하는 호랑이 본연의 모습에 초점을 두고 마스코트를 개발하였다. 이마엔 고려대 본관 앞 길 모습(大)을 연상하게 하는 무늬가 있으며, 고려대의 상징인 방패를 가슴에 크게 새기고 그 안에는 고려대의 이니셜인 'K'가 새겨져 있다. 거침없는 열정으로 고연전에 앞장서는 정의로운 행동파 리더로, 모든 이가 인정하는 활발한 성격으로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다.





김창훈 (경영 89)

조은영 (경영 92)

부부 고대인

경영대학에는 '정진초'라는 공인회계사시험 준비반이 있습니다. 군대 전역 후 이곳에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도 만나고 있는 87학번 조모 선배가 어느 날 나를 불러냈습니다.

“창훈아, 너 여자 친구 있어도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지?” 평소 나를 아껴주던 선배는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소개팅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형, 저 자신 없어요”라며 거절했습니다. 유쾌하고 호탕한 성격으로 유명한 그 선배가 무안해하는 걸 그때 처음 봤습니다. 당시 고대의 분위기는 호주머니에 달랑 버스비만 있어도 멀리 신촌까지도 배짱 소개팅을 마다하지 않던 시절이라 그 선배에게 더욱 미안했지만, 나는 시험 합격이 더 급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해 경영대학에 입학한 자신의 먼 친척 뺨인 지금의 집사람을 소개해 주려던 것이었습니다. 여학생이 몇 명 없던 당시의 경영대학 분위기상 그 여학생은 금방 눈에 띄었고, 남학생들의 화재에 오르게 되었으며, 멀리서 바라만 보던 나도 어느새 그녀를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시험만 합격하면, 멋지게 데이트 신청을 하리라 혼자 마음은 먹었지만, 연 이은 2차 시험 탈락으로 그날은 오지 않았고, 데이트 신청은 커녕 말 한마디 붙여 보지 못한 상태로 신입생이던 그녀는 어느새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여 학교를 떠났습니다.

한번은 그녀에게 마음의 고백을 담은 편지를 쓴 일이 있는데, 같이 공부하던 친한 친구에게 보여줬더니 진심이 담겨 있어 좋다고 하면서, 자신이 집 주소를 파악해서 발송해주겠다고 편지를 가져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서 생각하니, 5년 전에 선배가 해주겠다는 소개팅은 호기롭게 거절하고 찌질하게 뒤에서 연애편지나 쓰는 내 모습이 너무 한심해서 안암동 그 친구의 고시원을 한밤중에 찾아가 편지를 빼앗아 불태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던 중 직장생활에 흥미를 못 느낀 그녀가 공인회계사 시험준비를 위해 학교로 복귀를 하여, 정진초에 들어오게 되었고 내가 속한 '밥조'에 끼여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루하기만 하던 수험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고 6년여의

수험기간 중 처음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에 그녀와 소개팅을 제안했던 그 선배는 혼자 힘으로 해냈다고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한편, 연 이은 아들의 실패에 답답하셨던 어머니는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고, 그로부터 아들이 운이 2% 부족하니, 운이 있는 여자를 만나면 합격한다는 얘기를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뒤늦게 어머니께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얘기를 드렸더니, 오히려 기뻐하시며, 당장 집으로 불러서는 결혼날짜를 잡자고 하셨습니다.

운이 있는 여자를 만난 이후, 인생이 술술 풀렸습니다. 결혼을 했고, 소중한 딸과 아들을 얻었고, 회계법인을 창업하여 어렵지 않게 자리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따라 이곳 미국 애틀랜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고대가 맺어준 인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에게 고려대학교와 고대 교우회는 더욱 특별합니다.





김경화 (법학 96)
유철희 (정외 99)

부부 고대인

‘부부고대인’이라는 글의 주제를 두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고대에서 만나 고대의 추억을 종종 이야기하면서도 ‘부부 고대인’이라는 타이틀에 대해 특별히 생각해본 적 없었고, 사실 2022년 우리 가족이 이곳 애틀랜타로 이주한 후 교우회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살면서 우리 부부가 ‘교우’라는 생각 자체를 별로 해본 적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정외과 99학번, 나는 법학과 96학번. 학과도 다르고 학번 차이도 있어 학부 시절에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것은 남편이 법대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입니다. 나는 이미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 중에 있었는데 어느 신학기, 타과에서 석사 신입생이 들어왔습니다. 제대 직후라 군기가 바짝 들어있던 그는 학구열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는 법대 법률정보센터에서 행정조교 일을 하였었는데 센터에 가면 카운터에 서서 활짝 미소를 지어 보이던 모습이 살면서도 한번씩 생각이 납니다. 추억을 먹으며 살아 간다는 어른들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가 원래 웃상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나에게만 특별히(?) 웃어준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연이 어떻게 부부로 까지 이어졌는지 긴 이야기는 독자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처음 애틀랜타에 온 것은 2014년 남편이 Emory 로스쿨에서 유학생생활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애초에 유학 후엔 귀국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몇 년 잠깐 산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에는 교우회 행사를 찾지 않았습니다. 귀국 후 남편이 이곳의 로펌으로부터 취업 제의를 받게 되었고, 2022년 1월 우리 가족의 진짜 해외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가을, 외로운 해외생활에서 마음 기댈 작은 언덕 하나 찾는 심정으로 신문 광고를 보고 고연전에 참여하면서 미주 동남부 교우회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외생활에서 교우회의 의미는 남다른 듯합니다.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우회는 고대 교가의 가사처럼 “마음의 고향”입니다.

특히 우리 동남부 교우회에 참여하면서 놀랐던 것은 실제 활동하는 학번대가 정말 다양하다는 것 그리고 그 다양한 학번대가 서로 잘 어우러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대를 걸친 학번

대의 교우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지만, 이것이 해외 교우회가 가질 수 있는 장점 중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친지 모임 외에 어느 모임에서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하나로 뭉칠 수 있겠습니까? 가끔 교우회 행사에 14살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해외에서 느끼기 어려운 유대감을 아이도 느낄 수 있는 감사한 시간입니다.

우리 부부는 2023-2024 미주 동남부교우회에서 임원을 맡고 있고, 2023년 12월 송년회와 2024년 1월 승명호 교우회장님, 김동원 총장님의 애틀랜타 방문 환영만찬 및 신년회에서 함께 사회를 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그와 같은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느끼는 책임감이 컸는데, 스크립트를 만들면서 오랜만에 둘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다 보니 새삼 '부부고대인' 으로 서의 자긍심이 느껴졌습니다. 둘 다 무대체질은 아니라서 그저 평범했는데도 세상 최고로 잘 한 것처럼 칭찬해주시는 선후배님들 덕분에 우리 부부의 멋진 추억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고대를 함께 다닌 우리 부부는 부부 이전에 교우(校友)입니다. 우리는 부부이자 같은 학교를 다닌 우애를 나누는 평생의 친구입니다. 부부는 사랑으로 맺어져서 의리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의리에 우정까지 더해져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교우회 활동을 통해 더욱 굳건한 교우 사이가 되었다고 하면 조금 과장일까요.

후훗. 우리 둘은 인생의 동지로서 또 '부부 고대인' 으로서, 좋은 날도 흐린 날도,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여정을 함께 걸어 나가고자 합니다.





박한정 (화학 96)
김민희 (물리 02)

부부 고대인

호랑이의 습성은 개인 활동입니다. 호랑이는 자신의 영역을 강하게 지키기 때문에 같은 형제자매도 경쟁을 통하여 쫓아내고, 심지어 여왕 격인 엄마 호랑이도 딸을 자신의 영역에서 몰아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려대학교 호랑이는 어떠한가요? 우리 고대인들은 개인 활동에도 단체 활동에도 그 협응력이 뛰어나고, 심지어 단체 활동에서는 그 힘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됩니다. 우리 고대 호랑이들은 어느 곳에서나 서로를 찾아내고, 어느 곳에서나 서로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2012년, 미국 애틀랜타, 박한정은 혼자였습니다. 애틀랜타에 스스로 구축한 생활터전에 너무나도 완벽하게 적응한 호랑이였습니다. 풍류를 즐길 줄 알고, 자신의 삶에 만족도가 높은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처음 애틀랜타에 도착한 2011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고려대학교 교우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고대인으로서 새로운 곳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당연히 고려대학교 교우회를 찾는 일입니다. 우리 고대인들은 전세계 어느 곳이나 존재하기에,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012년 가을, 고려대학교 애틀랜타 유학생 교우회 피크닉, 그 곳에서 그는 새로운 암컷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2011년 애틀랜타로 유학 온 김민희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함께 할 때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둘은, 이미 커다란 추억을 기저에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화학, 일반 물리 수업을 들었던 아산 이학관, 선후배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도 나누고, 응원가도 외쳤던 애기능, 고대인으로 자긍심을 갖게 했던 3월의 입학식, 장승에서 만나자 했던 약속들, 선배들이 참살이길 에서 사준 밥, 후배들에게 물려준 손 때 묻은 족보들, 시간은 다르지만 같은 공간과 같은 추억을 공유하기에 그 청춘 호랑이들의 만남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참여한 행사는 그 해 겨울 애틀랜타 교우회 송년회, 그 누구보다도 그들의 만남을 축복해주셨습니다. 새로운 호랑이 커플의 탄생은 이미 장성한 호랑이 무리에서는 가장 축하할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성장과 확장을 누구보다도 기다리시던 분들이었습니다.

2014년 그 둘은 많은 교우분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을 했고, 그 둘의 새끼 호랑이가 2015, 2018년 태어났습니다. 새끼 호랑이의 포효는 우렁차고, 무리의 기쁨은 넘쳐났습니다. 어디든지 함께했고, 고려대학교 깃발 하에서 당당히 행진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COVID-19 pandemic 종료 후, 애틀랜타 교우회는 다시 고대 깃발을 높이 세웠습니다.

그 곳에 박한정 & 김민희 호랑이 커플이 만든 새끼 호랑이 둘이 함께 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자기 몸 만한 고대 깃발을 흔들며, “고대! 고대!”를 외치고, “엘리제를 위하여” 를 목청껏 소리 높여 부릅니다.

부부 교우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족 모두가 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 활동이 익숙한 호랑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무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청년 호랑이가 짝을 만나, 새로운 터전을 잡고, 새끼를 낳고 무리를 키웠습니다. 그 중심에 고대 교우회가 있었고, 그 중심에 고대의 추억이 있었고, 그 중심의 “고려대학교” 그 이름이 있습니다.





Peter Heidbreder
 명예 교수

Korea University Alumni Story

My name is Peter Heidbreder and I have had the good fortune to meet Kyoung Wook Jang who ultimately introduced me to the Atlanta area KU Alumni Association. Early on in our relationship, we went to the Atlanta area Korea-Yonsei rivalry with Yonsei University alumni at a local park and met many members of the Atlanta chapter of the KUAA. I was immediately struck by the dedication of the organizers and the camaraderie and passion of the KU alumni members.

My very next event was the annual Christmas party at Bear's Best Country Club in Suwanee, Georgia. There were various reports from the chapter leaders along with awards and recognitions after dinner followed by participation games and entertainment. Toward the end of the party I learned some of the KU songs and finished shoulder to shoulder with member singing the "Bat No Rae". Once again, I could not help but admire the spirit and enthusiasm of the members young and old.

In September of 2018 we went to Seoul for a visit with relatives and to participate in Alumni events coinciding with the "Ko-Yon Gun". We went on various tours and eventually ended up in the evening on Cham Sa Ri Gil where selected bars hosted alumni of the KU schools the alumni had graduated from. I made many new friends who introduced me to many of the cheers, songs and of course Makgeolli.

During that visit we had the honor of having an Alumni dinner with the President of Korea University which was the highlight of the trip. At one point during the dinner they passed a microphone around the long table to introduce ourselves and to say a few words. I took the opportunity to express my admiration of the passion and team spirit of the Association and recognize that it's the members who make the Association a strong one. It was quite an experience and I feel grateful to have been included.

Over the years I had the pleasure of attending many Alumni events - picnics,

Christmas parties, functions and meetings. I have been fortunate to be introduced to so many exceptional people and become friends with. I can see how great it is for the members to be able to get together and spend time with friends with a common shared experience of Korea University. It is place to continue building team spirit and be united as they did when they were much younger.

Ipselenti Chei Ho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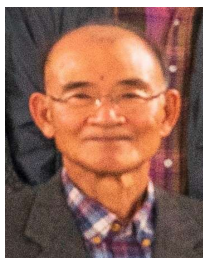
Kashe Koshe Keshe Koo

KalMashi Keshi Keshi Korea University!

KalMashi Keshi Keshi Korea University!

** 편집자 주 : Mr. Peter Heidbreder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교우회를 물심양면 도와 주시는 분 입니다. 이에 2018년도 송년회에서 고려대학교 미 동남부 교우회 '명예 교우'로 선정되어 우리 교우회와 늘 함께하는 Local 교우 입니다.





고 김강진
본교 명예교수
고려대학교 화학과

내가 본 고대

고려대학교의 변화와 발전

낮은 강의실에서 현대식 캠퍼스로

40여 년 전, 고려대학교 이과대학의 강의실은 낮고 오래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이 명산인 것은 높아 서가 아니라 신선이 살면 된다"는 글귀처럼, 훌륭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낮은 건물도 명소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려대학교는 '고대로' 있는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2006년, 넓은 중앙광장을 개조하여 지하 주차장을 확충하고 학생 편의 시설을 현대화하는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다른 대학들에게도 영감을 주었고, 캠퍼스 시설 개선의 선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최종현 회장의 기부로 건립된 과학도서관은 세계적인 학술지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교수들의 연구 활동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공대 캠퍼스의 운동장 역시 본교처럼 개조되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편의 시설과 학습 공간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에는 정주영 회장의 지원으로 이산 이학관이 건립되었습니다. 넓고 쾌적한 연구 공간과 강의실, 중앙 난방 시설까지 갖춘 현대식 건물은 교수와 학생 모두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건물 입구에 새겨진 정주영 회장의 좌우명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수많은 이공계 인재들에게 진취적인 기상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공대 캠퍼스 뿐만 아니라 본교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총장들의 노력으로 새로운 강의실과 박물관 등이 건립되면서 고려대학교는 끊임없이 발전해 나갔습니다.

세계로 뻗어 나가는 고려대학교

2005년 개교 100주년을 맞아 고려대학교는 '세계 석학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23개국 대학 총장들과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80여 명의 해외 석학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자문을 구하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특히, 해외 대학에 유학 중인 고려대 졸업생들이 통역과 의전을 맡아 성공적인 행사 진행에 기여했다는 점은 고려대학교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사례였습니다.

끈끈한 교류와 친목: 문과대 이과대 교수 친선 모임

과거 문리과대학 시절부터 이어져 온 문과대학과 이과대학 교수들의 친목은 캠퍼스 분리

이후에도 '친선 축구대회'를 통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교수들이 참여하는 활기찬 행사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연구 성과에 대한 압박과 부상 위험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선 축구 경기 후 이어지는 술자리에서 문과대 교수가 노래를 열창하는 모습은 대학 시절의 낭만과 교수 사회의 친목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축구 대신 탁구, 당구, 스크린 골프 등으로 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학술 세미나도 함께 진행하면서 단과대학 간의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어 원서 강의와 교수 지원

임용 초기부터 전공 과목 강의에 영어 원서를 사용하며 학생들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학생들은 영어로 된 시험 문제에도 훌륭하게 답하며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특히, 현재 테네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제자가 고려대학교에서 사용했던 바로 그 영어 원서로 강의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기쁨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교수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외부 산업체와의 연구 용역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학교는 해당 교수에게 법률 자문과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하며 적극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이는 교수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맺으며

고려대학교는 외형적인 발전 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훌륭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모금은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1990년 서정국 교수가 기부한 8억 원의 기금은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을 제공하며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외 지역 교우회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여 고려대학교의 발전에 힘을 보탠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려대학교는 과거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낡은 강의실에서 현대식 캠퍼스로, 국내 대학에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고려대학교는 '고대로' 있는 대학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50년을 넘어 미래로

< 50년사 편찬 위원회 >

1. 그 간의 우리 교우회 활동에 대한 평가

가. 그 간 선후배 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에 비교적 충실

지난 50여 년 전인 1970년 중반 불과 네다섯 명에 불과하였던 우리 고려대학교 애틀랜타 교우는 2023년말 현재 등록 회원수 195명을 기록하는 양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30여 년간 연초에는 신년하례겸 정기총회, 봄철에는 체육대회나 야유회, 가을에는 고연전 그리고 연말에는 송년모임의 4대 기축행사를 대부분 회원의 참석 하에 매년 성황리에 가져오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동호인모임, 골프모임, 등산모임, 사진반모임, 사격반모임, 간호학과모임, 의대모임 그리고 Georgia Tech, Emory 대학 재학생모임 등 여럿의 소그룹 동아리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는 등, 대내적으로는 우리 교우회의 설립목적인 선후배 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 및 모교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비교적 충신했다고 보입니다.

나. 제 4차 미주총연 개최 등 외부활동도 활발히 전개

2000년초까지 우리 교우회내에서의 활동에 머물던 우리 교우회는 2005년 봄, 뉴욕에서 있었던 모교창립 100주년 기념 전미주대회 참석을 계기로 타지역 교우회 등 외부활동에 눈을 돌렸으며, 2014년 6월에는 당시의 안성호 애틀랜타교우회 회장이 제4대 미주 총연합회 회장으로 선임되고 제4차 전미주대회를 이곳 애틀랜타의 스톤마운틴 골프장과 베어스베스트 골프 클럽 연회장장에서 근사하게 치루는 등 외부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나아진 위상을 반영 2011년 이후 2023년까지 이기수, 김병철, 염재호, 김동원 등 4분 모교 총장님들의 예방이 있었고 2014년 9월에는 모교 교우이신 전 이명박대통령의 방문도 있었습니다.

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기대에는 미흡

실제 그간 우리 교우들끼리는 교우회활동을 중심으로 오붓하게 잘 지내오고 있다고 봅니다. 외부에서는 이를 부러워하는 시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려대학교가 이웃도 돌보고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이바지하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IV. 50년을 넘어 미래로

2. 교우회 중장기 발전방향

- 스스로 참여하는 교우회, 도움주는 교우회
- 현 교우회 활성화 기조 견지
- 재정 안정화 노력 지속
- 총연 및 미주 타 지역 교우회와의 연계성 유지
- 신규회원이나 재학생교우들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 마련

⇒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우회 정립 등을 통하여 그 간 해왔던 교우회의 제반활동에 충실하고 지역사회에 발전에 이바지하는 모범지역교우회로 거듭 남.

3. 중장기 실천방안 (신규사업 중심)

가. 지역 학생들을 위한 “고려대 교우장학금” 제도 신설, 운용, 추후 집행부내에 “장학금제도 운영 팀”을 만들어 운영

- 팀원은 장학금지원에 경험이 있는 의대선배님 2명, 교우 2~3명, 집행부 실무임원 2~3명, 도합 7명내외로 운영
- 팀원 간에 많은 논의를 거쳐
- 장학금 규모, 장학기금 조달방법, 장학금 수여대상 인원 수, 대상자별 장학금규모, 장학대상자 선별방법 등을 결정, 운영

나. 한인회가 개최하는 “불우이웃돕기 운동”이나 “친환경 운동” 등에 적극 동참

다. 지역사회와의 연계강화

- 모교 총장님 예방 시 한인회 등과 협력하여 교민이나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강연 실시

라. 선후배간 정보 나누기 창구(KU Alumni Information Booth)를 설치, 운영

- 미국생활을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은 교우나 새로 시작하려는 교우 또는 Georgia Tech, Emory나 UGA등에 재

IV. 50년을 넘어 미래로

학중인 교우들의 경우, 대부분 미국생활진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바, 이에 대해 경험이 많은 선배들의 경우 제한적이지만 어느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경험이 많은 선배 2~3명, 이민 변호사 1명 정도로 구성, 년중 한두차례 선후배 간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 형태로 운영
- 동 창구에서는 필요시 구직정보(Job Opportunity)등도 공유

4. 중장기 실천을 위한 선행 조치 사항

- 현 교우회 회칙 일부개정 필요

가. 제 2조 (목적)조항에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는 조항 추가

나. 제 7조 회장의 업무를 규정한 조항의 경우 일부 수정필요

(예시) 회장은 - - - 각급회의의 의장이 되거나 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

다. 제19조 (사업추진) 조항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한다 ”는 조항 추가

5. 기타 의견

- 위 3의 중장기 실천방안 외에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교우회가 “달력 사업” 등 수익성 사업을 벌였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고, 후원금 모금 전문가를 육성하거나 기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수익성사업 추진은 우리 교우회가 몸짓이 더 커지고 바람직한 사업아이디어가 있을 때 추진 가능할 것이며, 후원금 모금 전문가 활용문제는 향후 장학기금 조달 등의 어려움이 생길 때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

- 이 외에 차세대리더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실제 이를 제도화하여 실시하기는 쉽지가 않은 점등을 감안, 매기 회장 및 임원들은 차세대리더육성의 필요성을 유념하여 가능성이 있는 젊은 교우들에게 교우회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징동물 – 호랑이 Tiger (용기, 결단, 민활, 위엄)

한민족의 신령한 동물 토템인 '호랑이'가 지닌 용기, 결단, 민활, 위엄 등이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민족적 기풍과 서로 상통하는 점이 있다. 1963년 안암캠퍼스 동쪽 언덕에 석조 호상을 세웠는데, 이는 호랑이의 기개, 그 지조, 그 기상을 길러 민족의 영원한 동맥이 되겠다는 본교생의 의지를 표상하기 위해서 였다.

IV. 50년을 넘어 미래로

유학생회가 바라보는 미래교우회への 제언

먼저 교우회 선배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50년사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교우회는 유학 생활을 하는 저희들에게 여러 면에서 큰 도움이 되며 활력소가 됩니다. 50년사 발간을 하며 미래의 교우회에 대해 유학생들의 생각을 나누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유학생회 임원들이 모여 나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우회 모임이 주로 친목 도모 모임이며 지금의 교우회는 이 목적을 매우 잘 충족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교우회는 유학생과 젊은 교우에게 향후 진로를 설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전체 교우들이 참석할 수 있는 KU Alumni Gathering Workshop을 (가칭) 개최하여 유학생은 물론 주제에 관심이 있는 교우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면 관련 전공자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Networking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젊은 유학생이나 졸업생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향후 진로 결정에 멘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교우회를 통해 선후배간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어서 직장별 교우 현황, 선후배의 동정을 (승진, 임용 등의 경조사) 포함한 교우들의 정보가 공유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남부 교우회에 요청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향후 교우회 본부가 주관이 되어 구축하고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교우 간의 실질적인 상부상조의 네트워크로 발전해 나가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3) 현재 유학생들은 학비는 특별한 걱정이 없지만 유학생회 행사를 진행할 때 (예: 신입생 환영회 등) 재정적으로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교우회와 같이 정기적인 회비를 받거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필요할 때마다 출원해서 진행하다 보니 참여율이 그리 높지 않고, 아 네트워크 형성 시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지원이 있다면 유학생회 간의 교류와 교우회와의 교류를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동남부지부 교우회의 정식 회원으로 유학생회의 활동을 보고하는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유학생회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왼쪽부터 신동주(전기전자 12), 최용준(건축 15), 황준영(전기전자 17), 이승윤(컴퓨터 12)

IV. 50년을 넘어 미래로

4) 마지막으로 현재 교우회 소통은 카톡방으로 하고 있는데 실시간 신속한 소통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회원이 사용할 경우 중요한 내용이나 소식을 비중 있게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에서 SNS와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고 Facebook이나 Instagram을 보완적으로 사용하면 신속한 소통과 교우회 일목요연한 소식을 함께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유학생회에서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이승윤(컴퓨터 12) 박차늬(행정 13)
김태리(컴퓨터 15) 이주영(바이오의공 11)



앞줄 왼쪽부터 석지호(생공 13) 최민제(컴퓨터 11)
뒷줄 왼쪽부터 홍지현(국제 15) 안지혜(사이버국방 14)



2023 고연전 승리를 축하하며 뱃노래로 어우러진 선후배들

V. 50년사 기념집 발간과정 및 감사문

1. 50년사 기념집 발간과정

<50년사 편찬위원회>

가. 기념집 발간의 필요성 논의

지금부터 약 14~15년 전인 2010년 무렵, 일부 교우 회원 간에 “우리들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었으며 이후 4~5년마다 한번씩 우리들 발자취 기록문제가 재론되곤 했다. 당시 일부 교우들은 이의 실현을 위해 외부의 문필가를 고용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으나 소요비용의 부담 등 제약으로 더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나. 올 3월 당이사회는 애틀랜타교우회 기념집 발간을 결의

우리 애틀랜타 교우회 이사회는 지난 3월 애틀랜타 교우회 50년사 기념집의 발간을 결의하였고, 이의 실행을 위해 이광언 교우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에 안성호 교우를 지명하였다.

다. 2024년 3월 하순 제1차 50년사 편찬위원회 출범

2024년 3월 하순 이광언 위원장과 안성호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애틀랜타 교우회 50년사 편찬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제1차 편찬위원회를 3월22일 열었다. 이 날 동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직과 명칭을 결정하였으며, 이어 50년사에 담을 내용(기본골격)과 발간 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선임된 편찬위원은 이광언, 안성호 위원 외에 임윤용, 서상희, 송경석, 홍윤, 곽용식, 김정은, 김수영 교우 등 7명으로 편찬위원 총원은 9명이었다.

편찬위원회의 명칭은 “고려대학교 애틀랜타 교우회 50년사 편찬위원회”라고 정하였다. 이는 우리 교우회를 회칙에서는 “고려대학교 교우회 미주 동남부 지부”라고 정하고 있으나 실제 우리 교우회는 지난 50여 년간 99.9%가 애틀랜타 (또는 조지아주)거주 교우들을 대상으로 운용되어 왔으며 이런 이유로 상당수 교우들이 우리 교우회를 “고대 애틀랜타 교우회”로 지칭해 왔음을 감안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날 편찬위원들은 50년사의 기본골격(목차결정)과 작업일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며, 이후 편찬위원회는 원고 마감시한을 대략 6월 말까지로 정했으며, 2주일 간격으로 모임을 갖기로 했다.

라. 2024년 4월~6월 기간 중 총 5차례 편찬위모임을 갖고 50년사의 알찬 내용을 위해 다음사항을 논의, 실행

- 목차결정 및 4차에 걸친 수정
- 50년 기간의 시대구분(1995년 이전, 1996~2010년, 2011년 이후) 및 각시대별 특징 논의
- 각시대별로 집필교우를 선정
- 우리 교우회 창립교우들과의 좌담회 개최
- 본 50년사 기념집 발간비용 마련을 위한 후원금 모금(기간 중 총 9,700 달러 모금)
- 기 교우회 회장님들께 회장당시의 교우회 활동 일람표 작성 의뢰
- 일부교우들이 보관중인 옛 자료, 사진 등을 발굴하여 편찬위 앞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
- 7개 동아리모임 리더 분들께 당해 동아리모임의 활동을 자랑하는 홍보문 작성 의뢰 등

마. 2024년 7월~ 8월 목차 5차 수정

- 7월, 8월 각 한차례 편찬위원회회의를 가짐.
- 전체 교우회원을 대상으로 50년사 기념집의 표지제목을 공모
- 기존의 목차 I,II,III의 50년 발자취 외에 새로이 미래편 ("IV.50년을 넘어 미래로")을 추가하기로 함
- 종전 편집의 도움을 받기위해 영입하였던 김정은, 김수영 편찬위원이 개인사정으로 편찬위 업무에 집중치 못하게 됨에 따라 새로이 조은영 교우(경영 92)를 편찬위 편집전담으로 영입
- 기 수집된 원고 일부 수정
- 8월 말로 원고 마감
- 1차 편집

바. 2024년 9월 이후 목차 6차,7차 수정

- 창립교우 세 부부 탐방문 추가
- 이종원 교우에게 창립교우 탐방문 원고를 부탁
- 50년사 기념집 표지제목을 "50년을 넘어 미래로" 결정

V. 50년사 기념집 발간과정 및 감사문

- V부에 50년사 발간과정 및 감사문 추가 (종전 V.부록편에서 소항목으로 다루었으나 이를 별도의 대항목으로 격상)
- 표지 디자인 작업, 사진 편집 및 해설 추가

사. 기념집 발간비용은 총 8,000달러로 예상

50년사 기념집의 발간비용 총액은 약 8,000 달러로 예상. 구체적으로는 인쇄비(워싱턴인쇄소)가 4,000달러, 편찬위원회 회의비가 2,500달러, 행사비 기타 1,500달러 등.



눈 내린 날의 모교 대학원 도서관

2. 감사문

<5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이광언>

가. 그간 교우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감사 드리고, 여러 편찬위원님들의 헌신, 노고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기념집은 여러 교우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격려를 받으며 “고려대학교 애틀랜타교우회 5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님들이 헌신,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편찬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본인의 집필분량이 방대함에도 이와는 별개로 “편찬위”의 대내외문서를 총괄하고 각종회의안건을 조율하는 등 헌신하여 주신 안성호 위원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창립교우님들과의 좌담회를 전담하시고 1970년대 초부터 1995년까지의 이야기를 유려하게 집필해 주신 임윤용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이 기념집의 좋은 Visual을 위해 각종 사진수집에 애를 쓰며 초기편집에 관여하였던 홍윤 위원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8월 이후 편찬위원회에 합류하여 본책자의 명료한 편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은영 위원과 바쁜 가운데도 창립선배님들의 부부 탐방 글을 써 주신 이종원 교우(사회 93)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980년대, 1990년대의 자료수집 등 편찬위의 궂은 일을 도맡아 처리해주신 서상희 위원과 송경석 위원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소그룹의 활동을 재미있게 알차게 소개해 주신 여러 동호인그룹 리더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귀한 시와 글과 그림으로 이 기념집을 풍성하게 꾸리는데 도움주신 여러 교우님들께도 감사합니다.

나. 여러 교우님들의 덕담과 격려, 후원은 저희 편찬위활동에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 50년사 편찬위가 활동하는데 있어 여러 교우님들의 덕담과 격려, 후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왔고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 기념집이 이렇게 번듯하게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여러 교우님이 저희에게 베푸신 격려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기간 중 도합 9,700달러의 거금을 후원, 저희들의 힘을 북돋아 주신 여러 교우님께 깊이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 이 기념집 발간과 관련 후원금 수입이 \$9,700이며 지출이 \$8,000 발생되어 \$1,700가 남았습니다. 이 금액은 교우회 앞으로 후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V. 50년사 기념집 발간과정 및 감사문

50 주년 기념집 발간 수입 지출 내역서

기간: 2024년 4월 ~ 11월

구분	성명	학번/전공	금액(\$)
후원금	장학전	58 의학	500
	박병호	59 영문	200
	이기철	60 의학	1,000
	정희창	60 의학	1,000
	송희석	61 경영	200
	박양삼	61 농학	200
	이광언	65 경제	300
	박남철	67 기계	500
	오대기	67 화공	500
	박일청	74 농경	500
	서상희	74 전기	500
	이학수	74 사회	500
	안성호	78 기계	1,000
	임윤용	79 사회	500
	이종엽	85 행정	1,000
	김창훈	89 경영	600
	Peter Heidbreder	명예 교수	500
	익명 교수		200
	총18명		
지출	인쇄비		4,000
	회의비 (편찬위원회 회의, 좌담회 등)		2,500
	행사비 기타		1,500
소계 (B)			\$ 8,000
잉여금	(A)-(B)		\$ 1,700

라. 이 50년사 기념집이 앞으로 우리 애틀랜타 교우회가 발전하는데 나침반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기념집은 우리 교우님들 모두를 위한 선물입니다. 이 기념집은 창립멤버 등 선배님들을 위한 “헌사이자 애틀랜타교우회 50년사 앨범”입니다.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집이 교우회를 이끌어가는 집행부 임원들에게 “교우회운영 매뉴얼”로 기능하고, 교우회문을 두드리는 신입 교우들에게는 “애틀랜타 교우회 안내서”로 역할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미래의 회장, 임원께서는 이 기념집을 “우리 교우회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나침반”으로 활용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애틀랜타 교우회원 명단

애틀랜타 (조지아주) 거주 정회원 대상 (2024년 8월 30일 현재)

총 등록회원 233명 중

·타주이사회원: 12명 ·한국거주회원:6명 ·유학생회원:17명 ·작고회원:14명

현 애틀랜타 거주회원: 184명을 기록

이름	학번	전공	비고
이종연	48	국문학	작고 (2024)
권오승	55	정치외교학	
이근우	55	영문학	
손철영	56	영문학	
강기호	57		sc 거주
백순영	57	법학	작고 (2024)
우문순	57	생물학	
여호근	58	의학	
장학전	58	의학	
한기대	58	행정학	
문상호	59	경영학	작고 (2020)
박병호	59	영문학	
전종석	59	경영학	
김병룡	60	생물학	작고
이기철	60	의학	
이화영	60	의학	
정혜자	60	의학	
정희창	60	의학	
차수웅	60	국문학	작고 (2024)
한평수	60	생물학	
김철홍	60	경제학	작고
박기흠	60	법학	작고
최광웅	60	상학	작고
박순	61	법학	
박양삼	61	농학	
이순재	61	화학	CA 거주
송휘석	61	경영학	

이름	학번	전공	비고
정상화	61	농화학	
황규백	61	경제학	
김순홍	62	의학	
박영길	62	농학과	작고
이병관	62	농학과	작고 (2022)
이정리	62	생물학	
김승경	64	농화학과	작고 (2017)
백경선	64	의학	
신현덕	64	행정학	
유영룡	64	경영학	
김종현	65	생물학	
송탁당	65	국문학	작고 (2024)
이광언	65	경제학	
이성준	65		
이정리	65	생물학	
장대숙	65	간호학	NC 거주
장인용	65	농화학	
주정숙	65	의학	
한성우	65	불문학	
김혜경	66	의학	
임연국	66	신문방송학	
홍기문	66	의학	
김덕중	67	경영학대학원	
박남철	67	기계공학	
오대기	67	화학공학	
장혜주	67	간호학	
주선기	67	기계공학	

VI. 부록 (Appendix)

애틀랜타 교우회 인명록

이름	학번	전공	비고
황만우	67	정치외교학	
신무열	68	경영학	IL 거주
최영찬	70	농경제학	작고
김영배	70	재료공학	
김종학	70	독문학	
서만석	70	기계공학	
황종훈	70	영문학	
서봉규	71	건축공학	
안병철	71	기계공학	
장은봉	71	경영학	
유태중	72	식품공학	
장마리아	72	간호학	
한성찬	72	국문학	
임근태	73	무역학	
박일청	74	농업경제	
서상희	74	전기공학	
송경석	74	농화학	
이태윤	74	경제학	NC 거주
오흥수	74	영문학	
이학수	74	사회학	
이혜옥	74	간호학	
최은일	74	기계공학	
고세연	75	전자공학	
김상백	75	수학	
박인호	75	전기공학	
왕숙희	75	수학	
정연경	75	행정학	
Cathy Lee	76	생물학	
김세덕	76	임학	
박동한	77	농업경제학	
서원철	77	화학	
조한중	77	축산학	
성기영	77	가정학	
심양섭	77	사회학	
윤춘호	77	영문학	
조장원	77	물리학	
김광민	78	식품공학	
김세현	78	재료공학	
문경표	78	법학	
박태우	78	경영학	
안성호	78	기계공학	
이재훈	78	기계공학	
한주형	78	영문학	NC 거주
김석호	79	교육학	
왕수창	79	체육교육학	

이름	학번	전공	비고
이종한	79	건축공학	
임운용	79	사회학	
김성윤	80	대학원	
김성희	80	농화학	
김준열	80	기계공학	
이귀언	80	간호학	
전도종	80	사회학	
전재영	80	경제학	TX 거주
최인영	80	생물학	
한문산	80	전기공학	
곽용식	81	경영학	
김범	81	대학원	
김영한	81	영문학	
당공위	81	신문방송학	
서일심	81	국어교육학	
허세림	81	경제학	TN 거주
홍윤	81	경제학	
카렌 장	82	수학교육학	
고영미	82	생물학	
김낙준	82	중문학	
김동희	82	임학	
이휘	82	원예학과	
김영배	82	행정학	TN 거주
박규만	82	건축공학	
배종훈	82	법학	
이광희	82	노문학	
권동운	83	통계학	
김동순	83	경영학	
송준호	83	서어문학	
이연희	83	국어교육학	
이혜숙	83	통계학	
임정욱	83	경영학	
최재선	83	정치외교학	한국 거주
최재정	83	경제학	
도한익	84	경영학	한국 거주
박경호	84	경제학	
윤태선	84	유전공학	
이종원	84	재료공학	
조승현	84	경영학	
김상균	85	농학	
문수정	85	신문방송학	
송운호	85	경영학	
신희경	85	영어교육학	TN 거주
이종엽	85	행정학	한국 거주
조현목	85	전자공학	한국 거주

이름	학번	전공	비고
주미성	85	간호학	
박호석	86	경영학	
문경식	87	재료공학	
이혁수	87	화공	
최종문	87	독문학	
강윤희	88	생물학	
박의진	88	법학	
박창원	88	생물학	
이유정	88	간호학	
장진호	88	농생물	
김창훈	89	경영학	
이상호	89	화학	
민병일	90	화공	
유성현	90	경영학	
유우성	90	사회학	
강준석	91	토목	
문지영	91	화학	
양재준	91	경영학	
이성구	91	건축공학	
이인현	91	유전공학	
공병휘	92	응용동물(축산)	
두현기	92	화학	
이성욱	92	대학원	
이정태	92	컴퓨터교육	
이현우	92	경영학	
장태영	92	전자공학	
조은영	92	경영학	
김민형	93	의학	
김정은	93	사회학	
김종윤	93	가정교육학	
이용승	93	의학	
이정우	93	화학공학	
신정수	94	불문학	
장영목	94	체육교육학	
정효식	94	경영학	
김수영	95	영문학	
김의수	95	체육교육학	
이건석	95	기계공학	
이종원	95	사회학	
김건엽	96	농경제	한국 거주
김경화	96	법학	
김도영	96	건축공학	
민지연	96	경영	
박한정	96	화학	TN 거주

이름	학번	전공	비고
윤우중	96	컴퓨터교육	
김범진	97	심리학	
이성학	97	경제학	
정경후	97	심리학	
정규수	97	체육교육학	
문성실	98	의학대학원	
정구철	98	전자공학	한국 거주
유철희	99	정치외교학	
이은미	99	간호학	
추효정	99	생명산업과학	
김종혁	00	통계학	
문진환	00	경영학	
김성호	1	컴퓨터	
김택현	01	의학	
이현성	01	컴퓨터	
정철민	01	기계공학	
김민희	02	물리학	TN 거주
배성호	02	생명과학 대학원	
정성훈	03	기계공학	
최은란	03	경영	
박서연	05	간호학	
권세일	07	국제학	
문우림	07	불어불문학	
하지수	08	경영학	
곽민구	10	산업경영학공학	
유진	10	건축공학	
이지환	11	건축사회환경공학	
신동주	12	전기전자공학	유학생회
이승윤	12	컴퓨터통신공학	유학생회
김건희	13	환경생태공학	유학생회
김근희	13	기계공학	유학생회
박차늬	13	행정학	유학생회
석지호	13	생명공학	유학생회
이재상	13	수학과	유학생회
이현지	13	화학공학	유학생회
장동원	13	전기전자공학	유학생회
안지혜	14	사이버국방	유학생회
김태리	15	컴퓨터과학	유학생회
조민우	15	기계공학	유학생회
최용준	15	건축사회환경공학	유학생회
이운규	16	컴퓨터과학	유학생회
최서영	16	사회학과	유학생회
황준영	17	전기전자공학	유학생회
주희진	대학원 20	경영학	유학생회
김강진	모교 전임 교수	화학	작고



권오승 부부 (정외 55)



이근우 (영문 55)



손칠영 부부 (영문 56)



여호근 부부 (의학 58)



한기대 부부 (행정 58)



김선희 부부 (의학 58)



장학천 부부 (의학 58)



박병호 부부 (영문 59)



차수웅 부부 (국문 60)



이기철(의학 60) 이화영 (의학 60)



정희창 부부 (의학 60)



김병룡 부부 (생물 60)



한응진 부부 (의학 60)



송휘석 부부 (경영 61)



정상화 부부 (농화 61)



박순 부부 (법학 61)



박양삼 부부 (농학 61)



김순홍 (의학 62) 주정숙 (의학65)



송탁당 부부 (국문 65)



이광언 부부 (경제 65)



장대숙 (간호 65)



장인용 부부 (농화 65)



한성우 부부 (불문 65)



황만우 부부 (정의 67)



박남철 부부 (기계 67)



오대기 부부 (화공 67)



주선기 부부 (기계 67)



신무열 부부 (경영 68)



김영배 부부 (재료 70)



안병철 부부 (기계 71)



서봉규 부부 (건축 71)



장 마리아 (간호 72)



송경석 (농화 74) 이혜옥 (간호 74)



박일청 부부 (농경 74)



서상희 부부 (기계 74)



이학수 부부 (사회 74)



정연경 부부 (행정 75)



박인호 부부 (전기 75)



윤춘호 부부 (영문 77)



심양섭 부부 (사회 77)



고승환 (영문 78) 서영란 (영교 83)



김세현 부부 (재료 78)



안성호 부부 (기계 78)



이재훈 부부 (기계 78)



임윤용 부부 (사회 79)



한문산 부부 (전기 80)



최인영 부부 (생물 80)



김준열 (기계 80)



전재형 부부 (경제 80)



허세림 부부 (경제 81)



홍윤 (경제 81) 이혜숙 (통계 83)



곽용식 부부 (경영 81)



박금주 (영교 81)



김영배 (행정 82) 신희경 (영교 85)



카렌 장 부부 (수교 82)



박규만 (건축 82)



이연희 (국교 83)



최재정 부부 (경제 83)



송준호 (서문 83)



이종원 (재료 84)



도한의 부부 (경영 84)



이종엽(행정 85)



문수정(신방 85)



김상균 (농학 85)



박의진 부부 (법학88)



송희상 가족 (농화 89)



이상호(화학 89)



김창훈 (경영 89) 조은영 (경영 92)



유우성 (사회 90)



이성구 (건축 91)



심연삼 (정외 91)



양재준(경영 91)



김정은 (사회 93)



이용승 (의학 93) 김민형(의학 93)



김의수 가족 (체교 94)



이종원 (사회 95)



김도영 (건축 96)



민지연(경영 96)



윤우중 가족 (컴교 96)



김경화 (법학 96) 유철희 (정외 99)



김범진 (사회 97)



이성학 (경제 97)



정규수 (체교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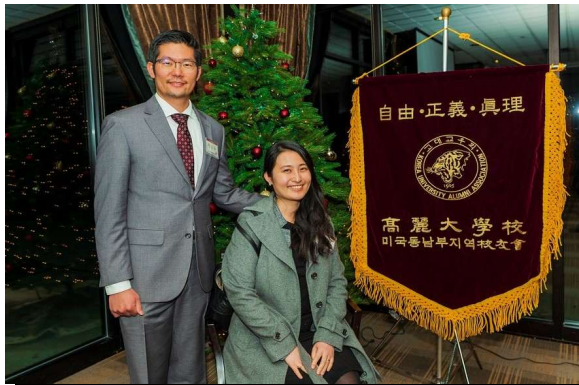
정철민 (기계 01)



조기웅 가족 (행정 02)



추경학 부부 (기계 02)



정승환 (경영 03) 이정현 (영교 05)



최은란 부부 (경영 03)



박두연 (경영 04)



김진년 (생명 05)



최재은 (경영 11)



김덕중 (경영대학원 15)



교호

구호	내용
교호	입실렌티체이홉 카시코시코시코, 칼마시케시케시, 고려대학 칼마시케시케시, 고려대학
승리호	우리는 고대,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헤이 - 고대 야 !!!
송구리	송구리 당당 송당당, 수구수구 당당 송당당, 아싸라비아 웃가웃가, 쿡구리 닥닥 쿡닥닥, 헤이 고대 야 !!!
킹호	킹호 킹호, 고대 킹호, 백전 웃샤, 백승 웃샤 헤이 - 고대 야 !!!

VI. 부록 (Appendix)

고려대학교 교가

조지훈 작사
윤이상 작곡

Moderato (♩ = c. 96)

mf

1. 북 악 산 기 슬 에 우 뚝 솟 은 집 을 보 라 안
2. 자 유 를 위 하 여 우 물 결 치 는 가 습 이 여 정
3. 그 유 한 수 플 은 우 리 꿈 의 요 람 이 요 처

암 의 언 덕 에 퍼 저 나 는 빛 을 보 라 저 레 의
의 를 위 하 여 글 게 나 은 은 소 념 이 여 불 타 는
넓 은 별 판 은 우 리 힘 의 신 망 이 다 드 는 이

f

보 람 이 요— 정 성 이 몽 처 드 높 이 쌓 아 을 린 공 든
정 성 이 라— 그 뜻 을 반 아 아 득 히 우 러 르 는 큰 이 정
나 가 는 이— 돌 려 서 지 쳐 힘 차 계 이 어 가 는 이

ff

탐 자— 유 정 의 진 리 의 전 당 이 있 다
상 자— 유 정 의 진 리 의 한 빛 이 있 다
신 자— 유 정 의 진 리 의 큰 길 이 있 다

후렴 *mf* *mp*

고 려 대 학 교 고 려 대 학 교 마 음 의 고 향

mf *ff*

고 려 대 학 교 고 려 대 학 교 영 원 히 빛 난 다



高麗大學校校友會